

多鈕鏡의 型式과 그 分布

이 청 규(영남대학교)

〈目 次〉

1. 序論	
2. 型式의 分類	1) 型式間의 文樣 交流
1) 基準	2) 出土狀況
2) 內容	3) 地域別 分布
3. 型式間의 交流와 分布	4. 結論

1. 序論

滿洲-韓半島-日本列島에 걸쳐 分布하는 多鈕鏡은 宗教的인 儀器로서 당시 政治體의 形成過程을 說明하는데 標識的 遺物로 이해된다. 그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당시 歷史的 實體로서 地域集團의 動向을 細密하게 살피려고 할 때, 多鈕鏡의 製作, 流通이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직접적으로 立證할 考古學的 증거를 確保하기 어려우므로, 多鈕鏡 자체가 갖는 情報를 최대한 活用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과 관련된 自然科學的 관찰과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 適當한 型式分類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식을 분류함에 上位 기준은 같으나, 下位의 그것은 학자마다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分類體系가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筆者 나름대로의 型式分類案을 提出하고, 이를 토대로 型式間의 關係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型式間이나 혹은 型式內에서의 系統과 交流를 살피는 작업은 單位文樣 자체 뿐만 아니라, 그 組合과 構成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한 型式間의 關係는 제작을 담당한 匠人 또는 地域集團간의 교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金후 別도의 檢證過程이 필요하다. 또한 型式간의 分포와 그 關係에 대해 의미있는 解析과 설명은 金후 본격적으로 試圖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中間研究의 成果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參照를 한 多鈕鏡에 관한 主要 研究論文은 다음과 같다.

宇野隆夫, 1977, 「多鈕鏡の研究」, 『史林』 60-1

全榮來, 1977, 「韓國青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全北遺蹟調査報告』 7

岩永省三, 1983, 「多鈕細文鏡再考」, 『文化財論叢-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張錫瑛, 1986, 「試論中國東北地區先秦銅鏡」, 『考古』 1986-2

甲元眞之, 1990, 「多鈕鏡の再檢討」, 『古文化談叢』 第22輯, 九州古文化研究會.

板利祐子, 1993, 「多鈕鏡の樣相と分布について」, 『研究紀要』 7, 北九州市教育文化事業團

平吹豊, 1999, 「多鈕細文鏡の研究」, 『國學院大學考古學資料館紀要』 15

- 李清圭, 1999, 「東北亞 地域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 宮里修, 1998, 「朝鮮半島青銅器文化の研究」, 早稻田大學大學院修士論文
- _____, 2001, 「粗文鏡について」, 『史觀』 114
- 李陽洙, 2002, 「多鈕鏡으로 본 韓半島 南部 社會發展」,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4, 「多鈕 細文鏡으로 본 韓國과 日本」, 『嶺南考古學報』 35
- _____, 2005, 「多鈕粗紋鏡의 製作技術」, 『湖南考古學報』 35

2. 型式分類

1) 基準

型式을 分類함에 基準으로 삼을 수 있는 多鈕鏡의 屬性은 거울 뒷면에 장식된 무늬를 비롯하여 周緣部와 꼭지의 형태 등이 있다. 이들 屬性은 相互 일정한 相關關係를 갖고 있어 우 어떠한 屬性을 택하더라도 上位 혹은 大分類體系는 거의 비슷하다. 그중에서도 第1基準으로서 무늬장식을 주로 택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屬性을 選擇할 것인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여기서는 單位文樣의 形態와 線을 제1기준으로 삼아 분류된 多鈕鏡群을 〈型〉으로 인식하여 A, B, C형의 3분류체계를 設定한다. A형은 거친 선의 粗文鏡에 해당하는 바, Z자형의 문양을 모티브로 삼는 거울群이다. B형은 다소 거친 선의 粗細文鏡으로 三角集線文을 단위문양으로 삼은 거울群이고, C형은 細線으로 施文한 細文鏡으로 三角과 四角의 集線文을 반복적으로 施文한 거울군을 말한다.

한편 같은 〈型〉의 거울群을 中分類하여 〈式〉을 설정할 경우 그 基準을 똑같이 하기 어렵고, 각 〈型〉別로 別途의 기준을 마련하는 바, 暫定的으로 A형을 제외하고, B, C형만 中分類하고자 한다. B형의 경우 C형과 달리 單位文樣이 통일되거나 정착되지 않아, 우선 거울 全面에 확인되는 문양의 형태와 구성을 따져 분류한다.

細文鏡 C형을 中分類할 경우 학자마다 그 基準이 일정하지 않다. 內, 外, 中區 별로 다양하게 선택된 文樣單位와 그 組合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分類가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外區 文樣의 기본이 되는 엇갈린 連續 三角集線文의 文樣 單位를 대상으로 한 분류가 容易할 뿐만 아니라, 각 종류에 따라 組合되는 單位文樣에 일정한 定型性이 파악되기 때문에 필자는 外區의 文樣帶를 기준으로 삼아 형식을 분류하고자 한다. 한편 下位型式의 분류 혹은 小分類는 C형에 속하는 형식 중에서 기준이 분명하고, 시공간적인 변천과정을 설명하는데 용이한 거울군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型式分類의 內容(표2 多鈕鏡 目錄 參照)

앞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型: 거친 線으로 Z자형의 번개무늬가 시문.

B型: 다소 거친 선으로 대체로 三角集線文을 단위로 한 무늬를 시문.

1式 - 文樣이 전혀 施文되지 않음

2式 - 全面에 放射狀 葉脈文 혹은 格子文을 施文.

3式 - 全面을 平行線으로 區劃하고 三角集線文을 施文

4式 - 區劃없이 三角集線文을 주변 둘레에 施文하고, 中心은 공백이거나 四角集線文으로 채움

5式 - 外區와 內區가 區劃되고, 三角平行集線文을 內區에 배치

6式 - 三角集線文이 圓圈 2區로 나뉘어 상하교대로 施文

C型: 細線으로 三角과 四角의 集線文을 定型화된 單位文樣으로 密集 施文.

1式 - 周緣部와 꼭지, 細線무늬는 전형적인 細文鏡의 屬性이나 定型화된 文樣이 施文되지 않음

2式 - 三角集線文을 위아래를 달리하여 外區에 施文. 3개의 下位型式이 있음.

3式 - 外區 連續文樣중 꼭지가 周緣으로 향한 삼각형의 내부를 밑변에 평행한 集線으로채워 施文. 2개의 下位型式이 있음.

4式 - 3式の 外區 連續文樣중 꼭지가 周緣으로 향한 三角形 내부를 공백으로 하여 施文. 2개의 下位型式이 있음.

5式 - 3式の 外區 連續文樣중 꼭지가 中心으로 향한 三角形 내부를 공백으로 하여 施文

(1) A型

Z자를 변형시켜 연결시킨 무늬를 거울 全面에 걸쳐 施文한 型式으로, 周緣部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거울 전면에 걸쳐 가운데를 공백으로 한 二重線으로 Z자형 모티브를 연속하여 施文하고, 배경을 平行集線으로 채웠다.

Z자무늬가 연결되는 部位의 文樣帶가 직각을 이루는 것이 그 초기 原型으로서, 朝陽 十二臺營子와 本溪 良家村의 예가 이에 속한다. 連結部位가 斜線으로 되어 있는 거울들은 후기형으로서 寧城 小黑石溝와 建平 大拉罕溝와 炮手營子의 예가 대표적이다. Z자무늬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여백을 메꾸는 平行集線文도 그 定型性を 잃어버리는 예로 沈陽 鄭家窪子의 예가 있다. 더 나아가 완전히 그 기본형을 잃어버린 예로 평남 成川과 傳 忠南의 예가 있다. 이들 변형의 粗文鏡은 周緣部가 형성되면서, 꼭지 형태는 흐트러지고, 거울 가운데 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그 Z자형 文樣이 定型性を 점차 잃어가는 推移를 보이는 바, 그 변천과정은 朝陽 十二臺營子- 寧城 小黑石溝- 平壤 신성동- 傳 忠南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2) B型

①1식

周緣部가 三角突起 단면을 하고 있으며 전체 모양은 B型の 다른 식과 유사하나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름 5cm의 慶州 朝陽洞의 예는 小形 倣製鏡으로 이해된다. 全南 靈巖 거푸집의 예는 周緣部 단면이 반원형의 無文鏡의 그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성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2식

단면 돌기형 혹은 반원형의 周緣部를 갖고 있으며, 고리형 꼭지가 거울 중심 가까운 곳에 만들어져 있다. 거울 전면에 걸쳐 거친 선으로 施文된 文樣 모티브가 定型性を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丹東 趙家保의 예는 가운데 꼭지를 頂点으로 하여 放射狀으로 대충 線을 긋고 그 사이를 여러 줄의 斜線을 施文하였다. 集安 五道嶺溝門의 예는 放射狀의 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葉脈 혹은 魚骨무늬의 形狀으로 施文

되었다. 황해 연안 小雅里의 예는 거울 전면에 걸쳐 格子文을 장식한 것이다. 각각의 예가 별도의 下位型式으로 分類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留保한다.

③3식

거울 전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여 다소 가는 線으로 區劃한 다음, 그 사이에 밀변을 달리하며 三角文을 장식한 것이다. 삼각문 내부는 한쪽 변에 평행하게 여러 줄의 선으로 채운 것으로 A型이나 B型 2식과 달리 單位文樣으로서의 틀을 제법 갖추었다. 이러한 三角集線文은 대부분의 B型和 C型 전체를 구성하는 單位文樣으로서 同 型式은 그 始原的 祖型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平南 盟山 鎔范과 全北의 출토예가 있다.

④4식

三角集線文이 거울의 꼭지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며 施文된 것으로, 전체적인 배치가 별의 디자인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한쪽 長邊에 평행하게 여러 줄의 선으로 내부를 채운 三角集線文을 위아래를 바꾸어가며 연속적으로 施文하였다. 周緣部가 돌기형 단면인 경우 꼭지를 중심으로 한 內區 부분은 공백 상태로서, 夫餘 蓮花里와 大田 槐亭洞 1식의 예가 대표적이다.

周緣部가 단면 원형으로 발전한 거울의 경우 그 상당수가 중심부에도 일정한 單位 文樣을 채웠다. 사각형의 네 꼭지를 이어 對角線을 그어 조성된 삼각형의 내부를 평행한 集線으로 장식한 사각집선문이 등장한다. 長邊 혹은 밀변에 평행한 集線文 두 종류가 있어 이들 四角集線文의 單位文樣이 細文鏡 C型の 內, 中間, 外區에 收容되기도 한다. 전 평남 盟山의 鎔范과 全州 如意洞의 예가 이에 속한다. 文樣의 구성과 변천 과정으로 보아, 1단계 蓮花里式에서 2단계 如意洞式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⑤5식

周緣部 가까이에 1條의 선으로 폭이 좁은 外區를 별도로 區劃한 内外區의 2구型式이다. 전형적인 예는 전주 여의동 경으로서 內區에는 B4식, 外區에는 B5식의 文樣을 융합한 型式이라고 할 수 있다. 전 京畿 連川의 예는 外區에 斜格子 무늬를 장식하여 B2식과 B4식을 融合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益山 五金山 鏡은 外區에 거칠게 짚은 垂直線을 배치하고 內區에도 또한 거친 선으로 구성된 부정형의 삼각문을 배치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 얼핏 보면 이른 단계의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예를 거칠게 모방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⑥6식

기본적으로 外, 中, 內區의 3區의 구도를 갖추고 있지만 內區에는 文樣이 없거나 있더라도 정형화되지 못하고 있다. 外區와 中區에 삼각집선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三角形 안쪽에 채워진 平行集線文이 등성등성한 형상이다. 이른 단계에 덜 정형화된 예가 吉林 樺甸 西荒山屯과 沿海州 이즈웨스트코포에서 확인되는 바, 周緣部가 단면 돌기형을 하고 있다. 보다 정형화된 형태의 通化 출토 거꾸집과 牙山 南城里的 예를 보면 周緣部의 단면이 반원형으로 다음 細文鏡 C型에 근접해 있다. 대체로 文樣의 형상으로 보아 집안 오도령구문-통화-아산 남성리 순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3) C형

①1식

周緣部가 細文鏡에 보이는 반원형 단면을 갖추었으나, 전형적인 細文鏡으로 이행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型式이다. 이에 속하는 夫餘 東西里 4鏡은 상하 엇갈린 연속 三角集線文帶의 外區를 갖추고, 內區에 三角集線文을 방사상으로 장식한 것이다. 夫餘 九鳳里의 예는 3區로 구성되고, 外區에 三角集線文을 갖추었는데, 中區는 A식에 보이는 Z자형 무늬로 구성된다. 또다른 부여 동서리 5경과 연해주 쇼코토보에의 거울은 同心圓文만 확인되었다.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圓圈帶는 C식의 다른 하위 型式에서 收容되는 屬性이다.

②2식

B型 粗細文鏡의 外區文樣의 系統을 따른 型式이다. 기본적으로 안쪽을 평행선으로 채운 二等邊三角形文을 上下를 바꾸어 연속하여 施文한 三角集線文帶를 外區에 장식하였다. 三角形 안쪽에 채워진 여러 줄의 평행선이 三角形의 한쪽 장변과 같은 방향이고, 中間區에도 外區와 같은 구도의 三角集線文帶가 장식되어 있는 점은 牙山 南城里의 B3식의 그것과 같다. 內區에는 B5식의 傳 平南 平川과 中和 거울에서 起源한 정형화된 四角形集線文이 채워져 있다. 장방형의 경우 그 안쪽을 對角線을 區劃하고 平行集線文을 장식하였으며, 그 장방형을 半分한 형상의 方形集線文도 있다. 또한 圓圈文이 中間區에 추가로 장식되기도 한다.

이 基本型式이 발전하여 外區에 四角集線文이나 同心圓文의 單位文樣을 일정한 간격으로 추가한 下位型式이 있다. 四角集線文을 추가한 경우는 中間區에 장식된 文樣은 三角集線文이 아니라, 같은 四角集線文이라는 점이 공통된다. 內區의 文樣 또한 四角集線文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外區에 同心圓文이 장식된 경우는 앞서 外區의 四角集線 區劃文이 함께 施文되며, 中間區와 中心區에도 四角集線文이 장식되어 있는 예가 많다. 사각형 안쪽의 두 꼭지점을 이은 대각선으로 半分하고 平行集線으로 채운 單純型의 四角集線文도 또한 장식된다. 이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C3식의 中間區와 內區 기본 單位文樣으로 동 型式에서 借用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單位文樣의 組合關係로 보아 同 型式은 純粹 三角集線文帶의 外區를 가진 江原 原州1鏡의 C3a식- 四角集線의 區劃文을 外區에 배치한 九州 우키군덴 거울의 C3b식-사각형과 동심원의 區劃文을 外區에 배치한 和順 大谷里1鏡의 C3c식의 3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에서 內區에 장식된 四角集線文이 2단계에서 外區와 中間區로 확장된 현상이 보인다. 또한 3단계에서 外區에 同心圓文이 추가된 것은 다른 3,4,5型式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자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단계의 咸平 草蒲里의 예에서 보듯이 꼭지점 두곳을 이어 반분한 단순 사각집선문을 單位文樣으로 하여 內區에 장식된 것은 양양 釘岩里 거울과 같은 C3a식으로부터 借用한 것으로 이해된다. C3c식에서 보듯이 즉 二等邊三角形의 밑변과 같은 방향으로 내부에 여러줄의 평행선을 채우는 三角集線文의 外區와 방형集線文으로 中間區와 內區를 장식한 C3c식이 통째로 3단계의 唐津 素素里 거울에서는 內區의 文樣組合으로 借用되었다.

③3식

外區에 이등변 三角形을 밑변을 위아래로 바꾸어 가면 연속으로 外區를 장식한 것은 앞서 3c식과 같다. 그러나 거울 중심으로 향한 짧은 밑변과 평행하게 三角形의 내부를 集線으로 채운 것이 다르다. 中間區와 內區에도 또한 밑변과 장변에 각각 평행한 集線을 채운 삼각문 2조를 상하 접합시켜 구성된 사각문을 기본

單位文樣으로 하여 장식된다. 이러한 單位文樣은 이 3a식의 기본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C2식이 B식의 전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다르다. 또한 外區, 中間區, 內區가 유사한 형태의 單位文樣으로 통일되어 있으면서, 다른 型式의 單位文樣이 거의 借用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또한 外區에 四角集線文이나 同心圓文이 추가된 C2식과 차별된다.

양양 정암리 경에는 삼각문 안에 채워진 平行集線文이 밑변에 완전하게 같은 방향이 아니어서 앞서 C2식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中間區는 同 型式의 상당수가 10줄을 넘고 있다. 中間區의 줄이 많아질수록 內區의 면적은 좁아들기 마련인 바, 함평 초포리 2, 全州 孝子洞, 후쿠오카 가지쿠리 야마의 경우 內區에 아예 四角集線文 조차 채워지지 못한다. 이러한 下位型式의 변화를 볼 때 同型式의 1단계는 中間區가 3-10조이나 內區의 文樣帶가 제대로 갖추어진 橫城 講林里, 2단계는 中間區가 10조이상이고 內區가 거의 생략되어 있는 전주 효자동의 예가 각각 해당되어 각각 C3a, C3b 식으로 정리된다.

④ 4식

앞서 C2식 또는 C3식의 예에서 外區의 위아래를 엇바꾸며 연속施文된 삼각문 중 內區쪽을 짧은 밑변으로 하는 삼각문의 내부가 채워지지 않은 型式이다. 다른 型式과 달리 外區와 內區의 2구 구성이 기본형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

內區에 채워진 무늬는 전체를 방사상 도는 十字狀으로 區劃한 다음 區劃된 내부를 일정하게 평행한 여러 줄의 선으로 채운 型式이 기본형이다. 이와 유사한 2구型式의 細文鏡 전통은 부여 함송리 출토예에서 볼 수 있으나, 外區에 三角空白文을 배치한 것이 그와 다르다. 직경이 8-9cm 정도에 불과한 소형으로 꼭지가 3개인 점이 다른 型式과 차별된다.

이 C4식의 상당수는 外區와 內區만으로 이루어진 2區型式이면서 앞서 C3식에서 유행하였던 2조의 三角集線文이 組合된 사각형의 單位文樣을 內區에 채운 것이다. 이 單位文樣은 C3식이 同 文樣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미루어 同型式으로부터 借用된 것으로 보여진다.

外, 中, 內區가 갖추어진 3구형은 앞서 C3식처럼 中間區와 內區에 2조의 三角集線文이 組合된 사각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만 外區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이 역시 C3식으로부터 內區, 中區의 구성과 單位文樣이 借用된 것으로 이해된다. 3區型式중 예외적인 것으로 논산 원북리 출토예가 있다. 中間區 또한 外區와 같은 文樣대로 구성되고, 內區의 單位文樣은 대각선으로 區劃된 四角形集線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하면 C4식의 1단계는 2區型으로서 內區가 單純區劃文으로 이루어진 함흥 이화동의 예가 이에 속하고, 2단계 또한 2, 3구형으로서 장수 南陽里 예처럼 內區의 文樣구성에서 2條三角文組合 四角形集線文이 채택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⑤ 5식

外區의 文樣을 구성하는 삼각연속무늬 중에 銅鏡의 周緣部로 짧은 밑변이 면한 이등변 三角形의 안쪽을 공백으로 놔둔 것이다. 內區 쪽을 밑변으로 하여 三角形의 안쪽을 평행集線文으로 채운 점은 앞서 3식과 같으며, 4식과는 내부를 공백으로 한 삼각문의 위치가 바뀐 것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外, 中, 內區의 3구型式을 취하고 있어 2區型式이 기본형인 C3식과는 차이가 난다. 또한 內區와 中區의 單位文樣은 내부를 대각선으로 區劃한 사각集線文으로 채워지고, 中間區에서 위아래를 달리 하는 三角集線文대를 채용한 점에서는 C2식과 통한다. 후쿠오카 요사다케다카키의 예를 보면 中間區에 同

心圓文과 四角集線文이 施文되어 있는데, 이는 C2식의 外區文樣을 借用한 것이다. 따라서 外區文樣으로 보면 C3식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해되지만, 현재까지 자료로서 中間區와 內區의 文樣 구성으로 보아서는 C2식과 가깝다.

한편 外區의 三角集線文 바깥선을 이중으로 한 황해 龍山里와 完州 葛洞2鏡의 예가 있다. 기본적으로 3구型式인 점은 앞서와 같으나, 갈동의 예에서는 中區에 C3식의 外區 文樣대를 收容한 것이 예외적이다. 갈동의 예는 다른 C5식과 달리 소형에 세꼭지 型式이기도 하다.

4. 型式의 系統과 交流

1) 單位文樣的 融合과 繼承

A型の 粗文鏡에서는 Z자형의 문양만이 모티브로 선택되어 자체적인 변형만이 일어날 뿐으로 별도의 文樣要素가 추가되거나, 借用되지 않는다. 그리고 B型에서는 A型的 Z자형 모티브의 배경을 채운 三角集線文이 主文樣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무문양 다뉴경 B1식과 過渡期的인 B2식을 제외하고는 B3-6식 전부가 三角集線文을 主文樣으로 한다. B4식은 B2식의 文樣을 內區에 B3식의 文樣은 外區에 收容하여 융합한 型式이고, 이들 B型式에서 채용된 三角集線文은 다시 다음 C형의 주된 單位文樣으로 계승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B2식의 사격자문과 放射狀 葉脈文은 C형의 主文樣으로의 계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C型的 外區 區劃文으로 채택될 뿐이다.

전형적인 細文鏡으로 이행하기 전의 C1식의 단계에는 A식과 B식에 보이는 單位文樣이 일부 채택되기도 한다. 그리고 C型的 여러 형식에서 간혹 B형의 內區에 채택되는 單位文樣이 등장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세문경은 外區에 배치된 삼각집선문의 패턴에 따라 4 종류로 나누어지는 바, 각 下位型式別로 일정한 상관 관계를 유지하며 中區와 內區의 文樣 또한 기본 組合도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C2, C3, C4, C5식으로 分類되는 型式은 각각 나름대로의 원리에 근거하여 單位文樣과 組合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匠人集團마다 文樣的 設計案을 갖고 있고 그 傳統과 原理를 固守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C2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B4, 혹은 B6식의 外區 文樣대의 전통을 따르면서 B5식의 內區 單位文樣을 收容하였다. 자체적으로 外區에 四角集線文과 同心圓文을 추가하고 보다 복잡세련하게 발전하였지만, 형식상 가장 가까운 C3식의 文樣要素는 낮은 단계에 일부 借用하였을 뿐이다.

C3식 또한 거의 다른 型式으로부터 單位文樣을 借用하지 않고 있다. 中區와 內區에 선택된 單位文樣은 기본적으로 자체 창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文樣을 거의 추가하지 않으면서, 다만 中區의 文樣帶를 계속 확대할 뿐이다.

C4식은 그 기본형이 2區式에서 출발하는데, C4a식의 일부는 B형 다뉴경 혹은 그와 공반하는 圓蓋形銅器의 主文樣을 收容한 것이다. 內區의 單位文樣을 주로 C3식으로부터 借用한다. C2식으로부터는 그 內區의 單位 文樣을 일부 借用할 뿐 外區의 同心圓文과 方形區劃文은 收容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C2식의 文樣은 거의 借用하지 않고 C3식의 文樣만을 주로 借用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5식은 中區와 內區에서 기본적으로 C2식의 文樣을 借用한다. 福岡 吉武高木の 예처럼 C2식의 同心圓文과 方形區劃文의 外區文樣을 고스란히 中區에서 借用하기도 한다. 이러한 C식의 각

型式간의 관계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細文鏡 各 型式間の 相關關係

	C2	C3	C4	C5
C2		O	X	O
C3	O		O	X
C4	X	O		X
C5	O	X	X	

(융합있음 : O , 융합없음 : X)

2) 出土狀況

다수의 유물이 일정 유적에서 共伴 출토하였다면 그것은 동일한 時空間的 위치에 속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출토되는 脈絡에 따라 製作, 使用, 廢棄 어느 단계의 同時性이 부여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 동시에 사용되었지만 제작시점이나 제작 공간, 나아가 제작집단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廢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용 혹은 傳世期間이 각기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거푸집의 앞뒤면에 거울의 틀이 成形되어 있는 傳平南盟山 출토의 사례가 있다. B2와 B3식이 틀이 앞뒤면에 있으므로, 두 型式의 거울이 동시에 한 장소에 한 匠人集團에 의해 製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型式은 기본 單位文樣은 같지만, 文樣構圖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당초 각기 다른 장인에 의해 아이디어가 創案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못한다.

같은 遺構에 동시에 埋納되거나 副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폐기된 시점과 장소가 같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경우 공반된 유물이 제작수법이 다른 B型和 C型처럼 아예 다른 型이거나, 같은 〈型〉이기는 하나 C2, C3, C4, C5식처럼 中位型式이 다른 경우, 또는 같은 C2식이라 하더라도 C2a, C2b, C2c 등의 下位型式이 다른 경우가 있다. 첫 번째의 예처럼 그 〈型〉이 달라서 제작기술에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는 匠人集團이 다르거나 같은 장인집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제작된 시점이 다른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 禮山 東西里 積石木棺墓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 B4식과 C1식이 공반되고 있다. 전자는 B식의 늦은 단계, 후자는 C식의 이른 단계 것으로 추정되므로 큰 전세기간의 차이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전 괴정동의 예를 보면 같은 무덤에서 B3식과 B5식이 공반되었다. 그리고 전주 여의동에서는 B3식과 B4식이 공반되었는 바, 文樣을 제외하고는 상호 제작수법과 형태가 유사하다. 型式이 다르므로 다른 匠人集團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나, 앞서 평남 맹산 출토 예를 보듯이 같은 집단에 의해 제작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C형이면서 中位 型式이 다른 거울이 공반출토한 예로서 함평 초포리의 예가 있다. C2식, C3식, C4식 세 型式의 銅鏡이 공반되었는 바, 상호 單位文樣이 교환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각기 다른 장인집단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른 지역으로부터 遠距離 交易에 의한 것인지 같은 地域內에 모두 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中位 型式이 다른 거울이 한 무덤에서 출토한 예로 당진 소소리가 있다. C2와 C3식이 공반되는 바, 전자의 경우 보기 드물게 C3식의 內外區 文樣을 모두 借用한 늦은 단계의 C2c식이다. 이 경우 같은 지역에서 다소의 시점을 달리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겠다.

같은 中位 型式에 속하나 하위型式이 다른 예가 한 무덤에 부장된 예로 화순 대곡리의 예가 있다. C2b와

C2c이 공반되었는 바, 이 경우 또한 다소의 時差를 두고 한 장인조직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추정된다.

공반된 다수의 유물이 상호 같은 型式인 경우, 제작의 時點과 장소는 물론 장인집단 또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토기 안에 포개져 매납된 九州 若山의 多鈕鏡은 같은 C3c식으로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아산 남성리의 B6식 거울 2매가 부장된 예도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출토한 맥락을 종합해보면 동경의 제작에서 使用, 傳世, 埋納 혹은 副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地域에서 제작집단이 같은 경우로부터, 다른 地域에서 다른 제작집단에 의해 제작되고, 流通된 경우, 그리고 제작에서부터 일정한 時差가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하다. 바꾸어 말하면 대부분의 生活用品이 제작과 소비과정이 근거리에서 일정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다.

3) 地域別 分布

A型の 거울은 서쪽으로 內蒙古 寧城에서 遼寧 建平, 朝陽 등 遼西地域에서 가장 많이 分布하고, 요동과 평남, 그리고 충남 地域에까지 分布한다. 그 細部型式의 차이와 변천과정으로 보아 遼西의 대릉하유역에서 기원해서 서쪽으로는 건평과 영성으로 동쪽으로는 遼東地域을 넘어 韓半島로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遼西地域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地域에서 발견되는 거울은 현지 기술로써 모방한 제품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거울 자체의 유통이 요동과 韓半島 地域간에 원거리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A식의 이른 단계는 朝陽 十二臺營子와 本溪 梁家村的 예를 통해 전형 비파형동검, 늦은 예는 沈陽 鄭家窪子, 평양 신성동의 예를 통해 변형 비파형동검 단계에 속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粗文鏡에서 細文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의 B2식은 단동과 집안, 황해에 각각 1점씩 확인될 뿐이다. 그러다가 三角集線文을 單位文樣으로 한 전형적인 粗細文鏡인 B3, B4, B5식은 滿洲에서는 보이지 않고 韓半島의 평남 황해의 서북한과 충남과 전북의 서남한을 중심으로 보급된다. 그중 B5식은 B3식과 B4식이 融合한 것으로 현재까지 자료로서는 충남전북의 남한 서부地域에 집중 分布한다.

圓圈으로 區劃을 하여 外, 中, 內區가 갖추어진 B6식은 앞서의 型式과 달리 길림과 연해주, 그리고 韓半島의 충남전북에 보급된다. 전자가 압록강유역-서북한-서남한, 후자가 만주동부-서남한으로 이어지는 다른 分布樣相을 보여준다 하겠다.

B6식은 그 초기형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同型式의 發源이 滿洲地域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것은 B5식이 韓半島에서 발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대조가 된다. 한편 그 시기를 볼 때 B型的 상한은 B2식의 단동 조가보와 B3식의 전전북의 예로 보아 세형동검 초기에 속하고, 대체적인 하한은 아산 남성리에서 B6식 거울과 공반된 청동기의 예로 보아 세형동검 전기로 추정된다.

이들 전형적인 B型的 粗細文鏡이 제작보급되는 서북한과 서남한을 중심으로 다음 C型的 細文鏡도 집중 보급되는데, 특히 B형 세 系統이 모두 출토하는 충남 전북地域에서 細文鏡의 초기型式을 포함한 모든 型式이 출토한다.

粗細文鏡인 B식에서 細文鏡인 C식 단계로의 移行을 보여주는 C1식에 속하는 거울로 예산 동서리와 부여 구봉리의 예가 있는 바, 이 地域에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동 型式의 동경이 제작 보급되었으리라고 본다. 연해주 地域에서 同心圓文의 C1식이 확인되어 초기 細文鏡으로의 이행이 동 地域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되는 자료로 보아 전형적인 細文鏡 C식의 보급은 同地域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확실하다.

C2식은 그 초기형인 C2a인 경우 그 분포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外區에 四角形區劃文이 부가 장식된 C2b식은 청천강 이남의 전 지역과 일본열도에까지 널리 골고루 분포하며, 특히 평남황해와 충남전북에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外區에 同心圓文이 덧붙여진 C2c식은 화순과 영암 등의 전남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 형식이 충남지역에서도 확인되므로, 양 지역을 아울러서 제작보급된 地域型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본격적인 C형은 그 祖型인 B형이 집중 보급되는 지역을 據點으로 제작되고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 그 지역형인 C2c식이 전남을 새로운 거점으로 하여 제작보급된 것으로 이해된다.

C3식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널리 분포하지만, 현재까지 자료로서 C2식과는 그 거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C2식이 출토되었던 평남황해에서는 발견례가 없고 충남전북에서 몇점 확인되는 바, 아직 성급한 推論이지만 이로 미루어 그 거점이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보인다. 동 지역은 C2식의 祖型이라고 볼 수 있는 B5식의 중점출토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C3식 중에서도 한 단계 늦은 형식인 C3b식의 거울로서 하위 속성조차 유사한 예가 충남, 전남, 그리고 九州에서 출토하는 것으로 보아 동 형식단계에는 이들 지역간에 상호 밀접한 제작보급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되겠다.

C4식의 경우 이른 단계의 C4a식이 함남과 서부 남한지역에서 발견되고, C4b식 또한 평남황해지역에서 발견되지 않고, 충남전북지역에 여러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보아 C4식 형식으로 보면 함남과 충청전라지역을 잇는 네트워크가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C5식의 경우 평남황해지역에 집중되고, 충남전북지역에 1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C4식과 달리 평남-충남의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볼 때 C5식은 C2식, C4식은 C3식과 유사한 바, 그것은 앞서 中區와 內區의 문양의 相似性으로 본 바와 같다. 시기적으로 볼 때 C2-C5식은 세형동검, 鑄造鐵器와 공반되는 세형동검 후기에 속하는 것이지만 각 下位型式간에 공반유물을 통하여 그 시기를 細分하기는 곤란하다.

5. 結論

비파형동검 단계에 A형 동검의 제작보급이 遼西地域을 據點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과 대조가 된다. B형은 물론 C형의 모든 형식이 평남황해와 충남전북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양 지역이 세형동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뉴경 제작 보급의 거점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뉴경으로 象徵化된 〈小國〉 네트워크의 거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粗文鏡 단계에는 단일 모티브의 거울이 제작되다가, 粗細文鏡단계에 만주와 韓半島 몇 개 地域에서 구성을 달리하는 3개의 系統의 거울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細文鏡 단계에 이르러서는 韓半島 서북한과 서남한을 거점으로 정형화된 구성과 細線技術을 토대로 外區文樣을 基準으로 크게 4개의 系統의 거울이 제작 보급된다. 外區文樣은 中間區와 內區의 文樣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각 型式은 각각 獨自的인 系統을 이루면서 다른 型式과는 선택적으로 文樣의 借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系統 혹은 型式 상호간에 그러한 借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예도 있어 제작 장인집단 간의 相互交流에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交流의 차별성이 細文鏡 단계에 地域집단의 交流가 無作爲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며, 나아가 滿洲-韓半島-日本列島에서 형성된 초기 〈小國〉간의 交流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겠다.

表 2. 多鈕鏡 目錄 (A식은 대체로 粗文鏡, B식은 조細文鏡, C식은 細文鏡임.)

番 號	銅 鏡	型 式	形 態			直徑	出 土 遺 構	參考文獻
			文 樣	周緣部	鈕			
1	內蒙古 寧城 小黑石溝	A	粗帶雷光文	無	雙鈕	17.2	墓	동북아역사 재단 2007
2	遼寧 朝陽 十二臺營子 3號	A	粗帶雷光文	無	三鈕	22.5	墓	朱貴 1960
3	遼寧 建平 大拉罕溝 851號	A	粗帶雷光文	無	雙鈕	12.8	墓	李殿福 1991
4	遼寧 建平 炮手營子 881號	A	粗帶雷光文	無	雙鈕	14.1	墓	李殿福 1991
5	遼寧 本溪 明山 梁家村 1號	A	粗帶雷光文	匕面緣	雙鈕	12.8	墓	魏海波 1987
6	遼寧 沈陽 鄭家窪子 6512號	A	粗帶雷光文	無	雙鈕	8.8	墓	沈陽古宮博 物館 1975
7	中國 (傳)	A	粗帶雷光文	無	雙鈕	17.5	?	大阪彌生博 物館 1999
8	평양 순안구 신성동	A	粗帶雷光文	匕面緣	雙鈕	10.0	墓	국립중앙박 물관 2006
9	平壤 1 (傳)	A	粗帶雷光文	匕面緣	雙鈕	9.4	?	梅原末治外 1947
10	平南 成川 (傳)	A	粗帶星形文	突起緣	雙鈕	1.4	?	梅原末治外 1947
11	忠南 (傳)	A	粗帶雷光文	匕面緣	雙鈕	1.2	?	梅原末治外 1947
12	遼寧 沈陽 (傳)	B1	無文	半球緣	雙鈕	2.0	?	驅井和愛 1938
13	遼寧 丹東市 寬甸縣 趙家保 1鏡	B2	無文	突起緣	雙鈕	4.5	墓	許玉林·王連 春 1984
14	遼寧 丹東市 寬甸縣 趙家保 2鏡	B1	粗細葉脈文	突起緣	雙鈕	2.3	墓	許玉林·王連 春 1984
15	遼寧 丹東市 寬甸縣 趙家保 3鏡	B1	無文	突起緣	雙鈕	2.0	墓	許玉林·王連 春 1984
16	吉林 樺甸縣 西荒山屯 2號 1鏡	B6	粗帶三角圓圈文	突起緣	雙鈕	0.0	墓	吉林省文物 工 作 隊 1982
17	吉林 樺甸縣 西荒山屯 2號 2鏡	B?	?	突起緣	雙鈕	1.0	墓	吉林省文物 工 作 隊 1982
18	吉林 集安縣 五道嶺溝門	B2	粗細葉脈文	突起緣	雙鈕	3.9	墓	集安縣文物 保 管 所 1980
19	吉林 通化縣 榮額浦 鎔范	B6	粗細三角圓圈文	半球緣	雙鈕			滿 承 志 1987
20	吉林 通化縣 大架山 鎔范	B6	粗細三角圓圈文	半球緣	雙鈕			滿 承 志 1987
21	沿海州 슈코토보예	C1	粗細同心圓文?	半球緣	?	18	?	鳥居龍藏 1929
22	沿海州 이즈웨스트코보예	B6	粗細三角圓圈文	突起緣	雙鈕	2.5	墓	平井尙志 1960

23	平壤 貞柏里 1鏡	B1	無文	突起緣	雙鈕	7.2		榎本杜人 1969
24	平壤 貞柏里 2鏡	B1	無文	突起緣	雙鈕	7.2		榎本杜人 1969
25	平南 孟山 鎔范 A面 (傳)	B3	粗細三角平行文	半球緣	雙鈕	約 13.3	?	梅原.藤田 1947
26	平南 孟山 鎔范 B面 (傳)	B4	粗細三角星形文	半球緣	雙鈕	約 17.7	?	梅原.藤田 1947
27	平南 中和 (傳)	B4	粗細三角星形文	半球緣	雙鈕	3.1	?	梅原.藤田 1947
28	黃海 延安 小雅里	B1	粗細格子文	?	雙鈕	9.8	?	황기덕 1974
29	京畿 蓮川 (傳)	B5	粗細三角平行文	突起緣	雙鈕	1.3	?	湖巖美術館 1997
30	大田 槐亭洞 1鏡	B4	粗細三角星形文	突起緣	雙鈕	11.3	墓	李殷昌 1969
31	大田 槐亭洞 2鏡	B6	粗細三角圓圈文	半球緣	雙鈕	8.1	墓	李殷昌 1969
32	忠南 扶餘 蓮花里	B4	粗細三角星形文	突起緣	雙鈕	3.1	墓	金載元.尹武 炳 1964
33	忠南 扶餘 九鳳里 1鏡	B4	粗細三角星形文	半球緣	雙鈕	13.0	墓	李康承 1987
34	忠南 牙山 南城里 1鏡	B6	粗細三角圓圈文	半球緣	雙鈕	8.1	墓	韓炳三.李健 茂 1977
35	忠南 牙山 南城里 2鏡	B6	粗細三角圓圈文	半球緣	雙鈕	19.6	墓	韓炳三.李健 茂 1977
36	忠南 禮山 東西里 1鏡	B4	粗細三角星形文	突起緣	雙鈕	8.1	墓	池健吉 1978
37	忠南 禮山 東西里 2鏡	B1	無文	半球緣	雙鈕	9.4	墓	池健吉 1978
38	忠南 禮山 東西里 3鏡	B4	粗細三角星形文?	半球緣	?	13.5	墓	池健吉 1978
39	全北 (傳)	B3	粗細三角平行文	半球緣	雙鈕	約11 .5	?	全榮來 1977
40	全北 全州 如意洞 1鏡	B3	粗細三角平行文	半球緣	雙鈕	5.3	墓	全榮來 1987
41	全北 全州 如意洞 2鏡	B4	粗細三角星形文	半球緣	雙鈕	3.2	墓	全榮來 1987
42	全北 益山 多松里	B5	粗細三角平行文	突起緣	雙鈕	0.7	墓	全榮來 1975
43	全北 益山 五金山	B5	粗細三角平行文(?)	突起緣	雙鈕	12.5	?	金元龍 1967
44	全南 高興 小鹿島	B4	粗細三角星形文	半球緣	雙鈕	4.5	?	榎本龜生 1935
45	南韓 1(金東鉉)	B4	粗細三角星形文	半球緣	雙鈕	15.0	?	湖巖美術館 1997
46	平南 大同 反川里 1鏡	C2b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3.3	?	梅原.藤田 1947

47	平南 大同 反川里 2鏡	C5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0.5	?	梅原.藤田 1947
48	平壤 2 (傳)	C2b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3.0		梅原.藤田 1947
49	黃海 鳳山 松山里	C5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3.8	墓	황기덕 1959
50	黃海 新川 龍山里	C5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三鈕	9.7	墓	리규태 1990
51	咸南 金野 龍山里	C5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三鈕	8.7	墓	안영준 1983
52	咸南 咸興 梨花洞	C4a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三鈕	8.0	墓	박진옥 1974
53	江原 襄陽 釘岩里	C3a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4.3		金元龍 1967
54	江原 橫城 講林里	C3a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6.2		李康承 1977
55	江原 原州 1鏡 (傳)	C2a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4.2		全榮來 1977
56	江原 原州 2鏡 (傳)	C2b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4.5		全榮來 1977
57	忠南 唐津 素素里 1鏡	C2c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16.8	墓	李健茂 1991
58	忠南 唐津 素素里 2鏡	C3a	精細圓圈複合文	半球緣	雙鈕	9.5	墓	李健茂 1991
59	忠南 禮山 東西里 4鏡	C1	精細單純圓圈文	半球緣	雙鈕	9.5	墓	池健吉 1978
60	忠南 禮山 東西里 5鏡	C1	精細同心圓文	半球緣	雙鈕	7.0	墓	池健吉 1978
61	忠南 牙山 宮平里	C4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9.8	墓	李健茂 1989
62	忠南 扶餘 九鳳里 2鏡	B3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0.8	墓	李康承 1987
63	忠南 扶餘 合松里	C4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0.7	墓	李健茂 1990
64	忠南 論山 院北里 나1호	C2?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8.5	墓	中央文化財 研究院2001
65	忠南 論山 院北里 다1호	C4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三鈕	8.5	墓	中央文化財 研究院2001
66	全北 全州 孝子洞	C3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墓?	全北文化財 研究院2005
67	全北 完州 葛洞 1	C3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4.6	墓	湖南文化財 研究院2007
68	全北 完州 葛洞 2	C5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三鈕	9.2	墓	湖南文化財 研究院2007
69	全北 長水 南陽里 1號	C4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0.5	墓	池健吉 1990
70	全北 長水 南陽里 2號	C4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三鈕	9.7	墓	서국향 1998
71	全南 和順 大谷里 1鏡	C2c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4.4	墓	趙由典 1984

72	全南 和順 大谷里 1鏡	C2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8.0	墓	趙 由 典 1984
73	全南 和順 白巖里	C4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9.3	墓	趙現鐘外 2005
74	全南 靈巖 1 (傳, 國寶)	C2c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21.2	?	國立中央博 物館 1992
75	全南 靈巖 2 (傳, 崇實大)	C2c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3.3	?	全 榮 來 1977
76	全南 靈巖 3 (傳, 崇實大)	C2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2.6	?	全 榮 來 1977
77	全南 靈巖 4 (傳, 小倉)	C2?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22.0	?	梅原末治 1943
78	全南 靈巖 鎔范	C? ?		半球緣	雙鈕	8.3	?	林炳泰 1987
79	全南 咸平 草浦里 1鏡	C2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7.8	墓	李健茂.徐聲 勳 1988
80	全南 咸平 草浦里 2鏡	C3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5.6	墓	李健茂.徐聲 勳 1988
81	全南 咸平 草浦里 3鏡	C4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三鈕	9.7	墓	李健茂.徐聲 勳 1988
82	慶北 慶州 入室里	C3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3.3	墓?	朝鮮總督府 1925
83	慶北 慶州 朝陽洞 5號	B1	無文	半球緣	雙鈕	5.3	墓	國立慶州博 物館 2003
84	慶南 (傳, 小倉所藏)	C4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4.1	?	梅原.藤田 1947
85	南韓 (傳, 鄭武默所藏)	C2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5.7		國立中央博 物館, 1973
86	佐賀 唐津 宇木汲田	C2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0.3	墓	福岡市立歷 史 資 料 館 1986
87	佐賀 佐賀 本村籠	C2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0.5	墓	田中稿二 1992
88	福岡 福岡 吉武高木 3號	C5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1.1	墓	福岡市教育委 員會 1986
89	福岡 小郡 若山3區 1鏡	C3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5.3	住居址	速水信也 1994
90	福岡 小郡 若山3區 2鏡	C3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6.0	住居址	速水信也 1994
91	奈良 御所 名柄	C3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15.6	祭祀?	後藤守一 1943
92	大阪 柏原 大縣	C2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21.7	祭祀?	三本六爾.稻 葉憲日 1927
93	山口 下關 梶栗濱	C4b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三鈕	8.8	墓	三本六爾 1927
94	長野 佐口 社宮司	C?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約10	墓	永峰光一 1966
95	佐賀 増田	C3a	精細複合圓圈文	半球緣	雙鈕?	9	墓	佐賀教育委員 會 1998

〈多鈕鏡報告文獻目錄〉

1. 동북아역사재단, 2007, 『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기』
2. 朱貴, 1960, 「朝陽 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3. 李殿福, 1991, 「孤山子·榆樹林子 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 1991-2
4. 上同
5. 魏海波, 1987
6. 沈陽古宮博物館外, 1975,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1
7. 大阪彌生博物館, 1999, 『渡來人の登場』
8.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한의 문화유산』
9.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養德社
10. 上同
11. 上同
12. 驅井和愛, 1938, 「滿洲出土の多鈕銅鏡について」, 『考古學雜誌』 28-2
13.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1984-8
14. 上同
15. 上同
16. 吉林省文物工作隊外,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叢刊』 第1期
17. 上同
18.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81-5
19. 滿承志, 1987
20. 上同
21. 鳥居龍藏, 1929, 「極東シベリア發見銅劍と銅鏡」, 『考古學研究』 3-1
22. 平井尙志, 1960, 「沿海州新出土の多鈕細文鏡と一括遺物そのについて」, 『考古學雜誌』 46-3,
23. 榎本杜人, 1969
24. 上同
25.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養德社.
26. 上同
27. 上同
28. 황기덕,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관계의 유적유물」, 『고고학자료집』 4
29. 湖巖美術館, 1997, 『湖巖美術館所藏 金東鉉翁蒐集文化財』
30. 李殷昌, 1969, 「大田市 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査略報」, 『考古美術』 8-9
31. 上同
32. 김재원·윤무병, 1964
33. 李康承, 1987, 「扶餘 九鳳里出土 青銅器一括遺物」,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1, 考古學編, 一志社
34. 韓炳三·李健茂, 1977, 「南城里石棺墓」,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10冊, 國立中央博物館
35. 上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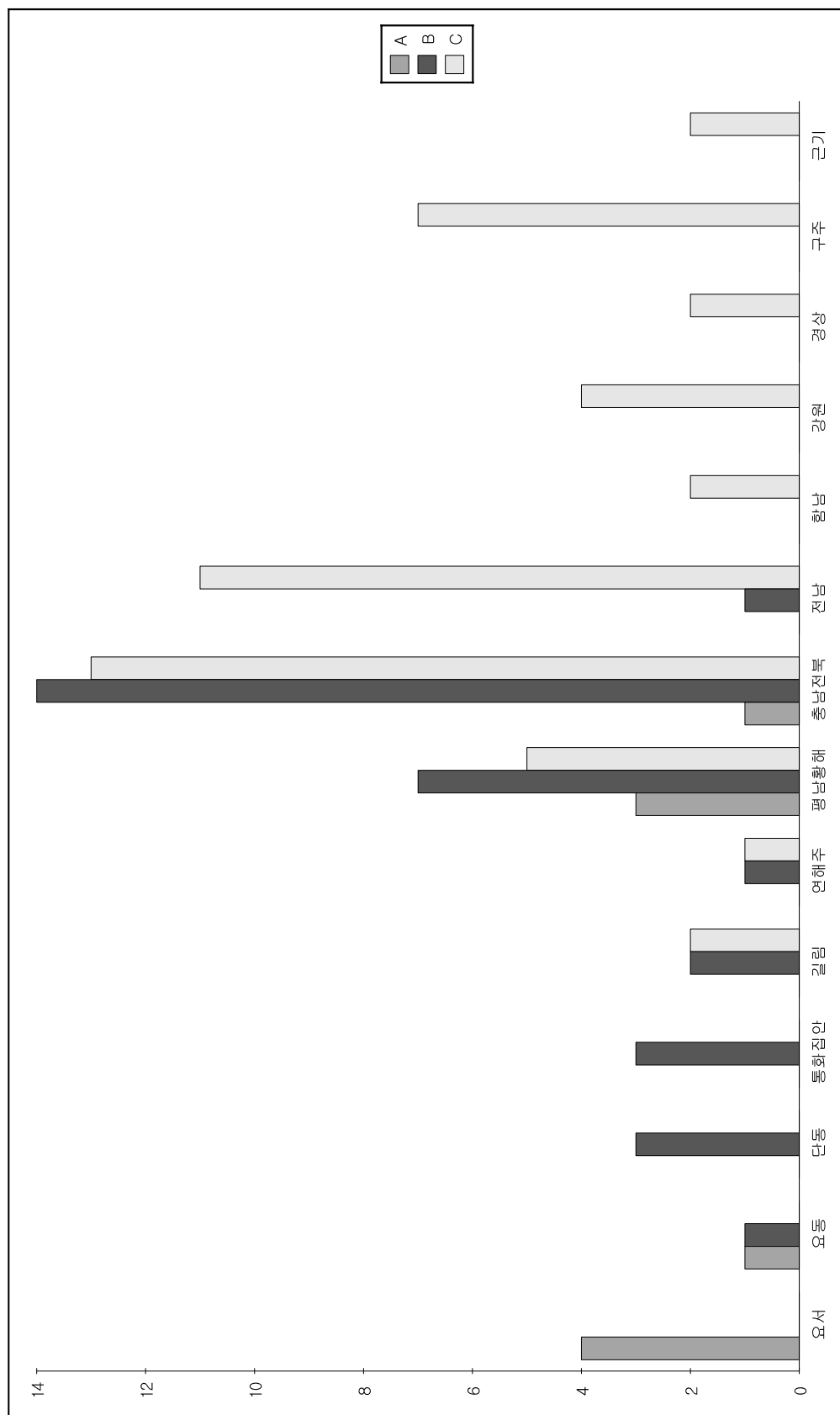
36. 池健吉, 1978, 「禮山東西里石棺墓 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 9
37. 上同
38. 上同
39. 全榮來, 1977, 「韓國青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全北遺蹟調查報告』 7
40. _____, 1987, 「錦江流域 青銅器文化圈 新資料」, 『馬韓·百濟文化』 10
41. 上同
42. 全榮來, 1975, 「益山多松里青銅遺物出土墓」, 『全北遺蹟調查報告』 5
43. 金元龍, 1967, 「益山 五金山出土 多鈕鏡·細形銅劍」, 『考古美術』 8-3
44. 榎本龜生, 1935, 「南鮮小鹿島發見多鈕細文鏡其他」, 『考古學』 6-4
45. 湖巖美術館, 1997, 『湖巖美術館所藏 金東鉉翁蒐集文化財』
46.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養德社
47. 上同
48. 上同
49. 황기덕, 1959, 「1958년 춘하기 어지돈지구 관계공사구역 유적정리 간략보고」, 『문화유산』 1959-1
50. 리규태, 1990, 「최근년간 황해남도에서 드러난 좁은 놋단검 관계遺物」, 『조선고고연구』 90-2
51. 안영준, 1983,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고대遺物」, 『고고학자료집』 6
52. 박진옥, 1974,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4
53. 金元龍, 1967, 「江原道 襄陽郡出土 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て」, 『史林』 50-2
54. 李康承, 1977, 「橫城講林里 一括遺物」, 『考古學』 4
55. 全榮來, 1977, 「韓國青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全北遺蹟調查報告』 7
56. 上同
57. 李健茂, 1991, 「唐津 素素里遺蹟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 3
58. 上同
59. 池健吉, 1978, 「禮山東西里石棺墓 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 9
60. 上同
61. 李健茂, 1989, 「牙山 宮坪里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 1
62. 李康承, 1987, 「扶餘 九鳳里出土 青銅器一括遺物」,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63. 李健茂, 1990, 「扶餘 合松里遺蹟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 2
64.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論山 院北里遺蹟』
65. 上同
66. 전북문화재연구원, 2005, 「전주 효자(4)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 현장지도위원회 자료
6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完州葛洞遺蹟-전주시 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문화유적조사」, 현장설명회자료
68. 上同
69. 池健吉, 1990, 「長水 南陽里出土 青銅器鐵器一括遺物」, 『考古學誌』 2
70. 서국향, 1998, 「長水 南陽里遺蹟 調査概報」,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第6回 湖南考古學會 學術大會發表要旨
71. 趙由典, 1984, 「全南 和順 青銅遺物 一括出土遺蹟」,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72. 上同

73. 趙現鐘外, 2005, 「和順 白巖里遺蹟 調查報告」, 考古學誌 1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74. 國立中央博物館, 1992, 『韓國의 青銅器文化』, 汎友社
75. 全榮來, 1977, 「韓國青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全北遺蹟調查報告』 7
76. 上同
77. 梅原末治, 1943, 「多鈕細紋鏡の新出土例—傳全羅南道靈巖發見の破片」, 『人類學雜誌』 58-8
78. 林炳泰, 1987, 「靈巖出土 青銅器 鎔范에 대하여」,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1, 考古學編, 一志社
79. 李健茂·徐聲勳, 1988, 『咸平草浦里遺蹟』, 國立光州博物館·全羅南道·咸平郡
80. 上同
81. 上同
82. 朝鮮總督府,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 第2冊
83. 국립경주박물관, 2003, 『慶州 朝陽洞遺蹟』
84.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養德社
85. 國立中央博物館, 1973, 『韓國先史時代青銅器』
86. 福岡市立歴史資料館, 1986,
87. 田中稿二, 1992, 「佐賀縣佐賀郡大和町本村籠遺跡出土の多鈕細文鏡について」, 『考古學雜誌』 77-4
88. 福岡市教育委員會, 1986, 『古武高木—彌生時代埋葬遺跡調查概要』,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查報告書 第143集
89. 速水信也, 1994, 「小郡若山遺跡3區出土の多鈕細文鏡」, 『考古學雜誌』 79-2
90. 上同
91. 後藤守一, 1943, 「多鈕鋸齒文鏡について」, 『古代文化』 14-9
92. 三本六爾·稻葉憲日, 1927, 「河內新發見の銅鏡と其出土狀態」, 『考古學研究』 1
93. 三本六爾, 1927, 「長門富任に於ける青銅器時代墳墓」, 『考古學研究』 2
94. 永峰光一, 1966, 「鏡片の再加工と考えられる白銅板について」, 『信濃』 18-4, 信濃史學會
95. 佐賀教育委員會, 1998, 「増田遺蹟出土の多鈕細文鏡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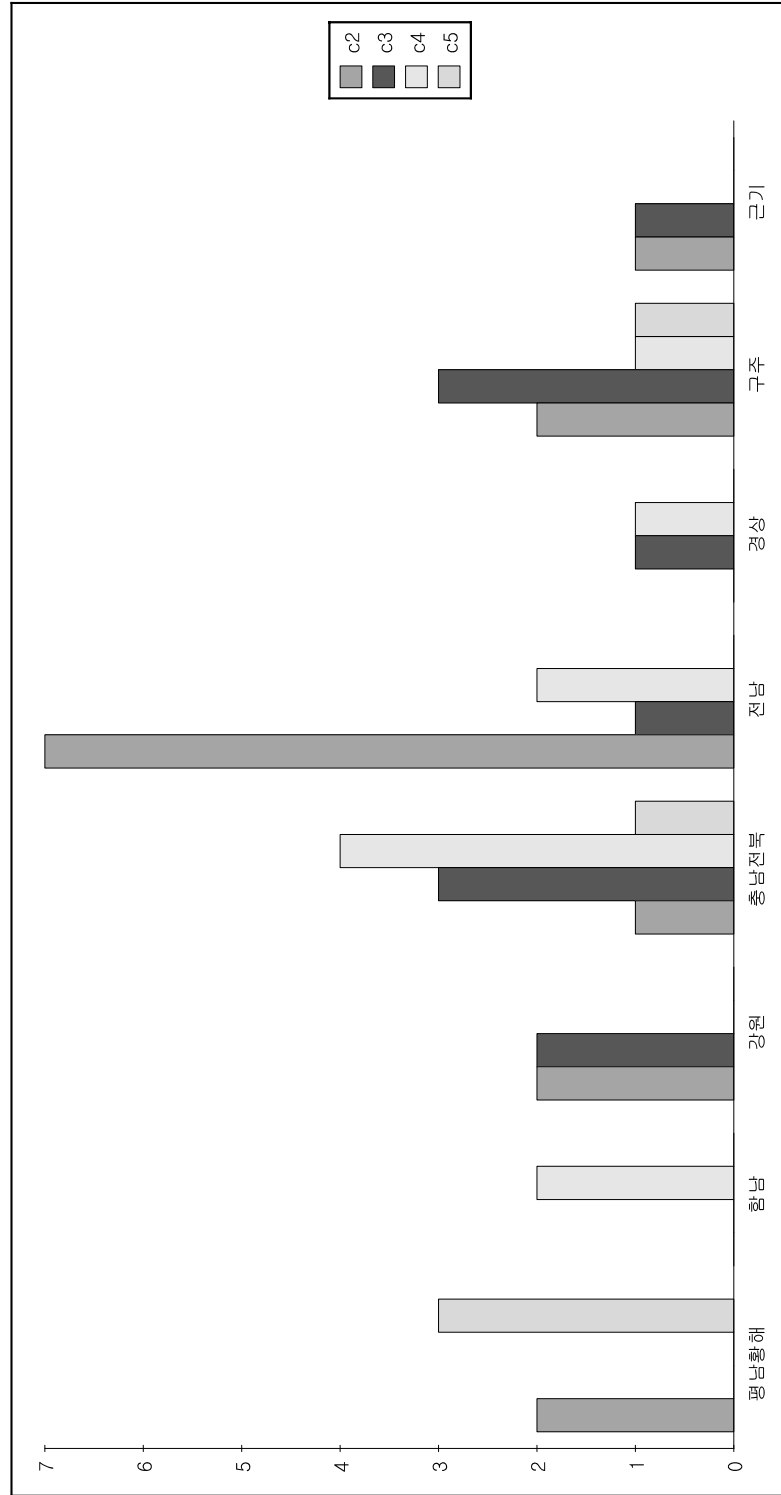
〈表3〉多鈕鏡 型式과 地域別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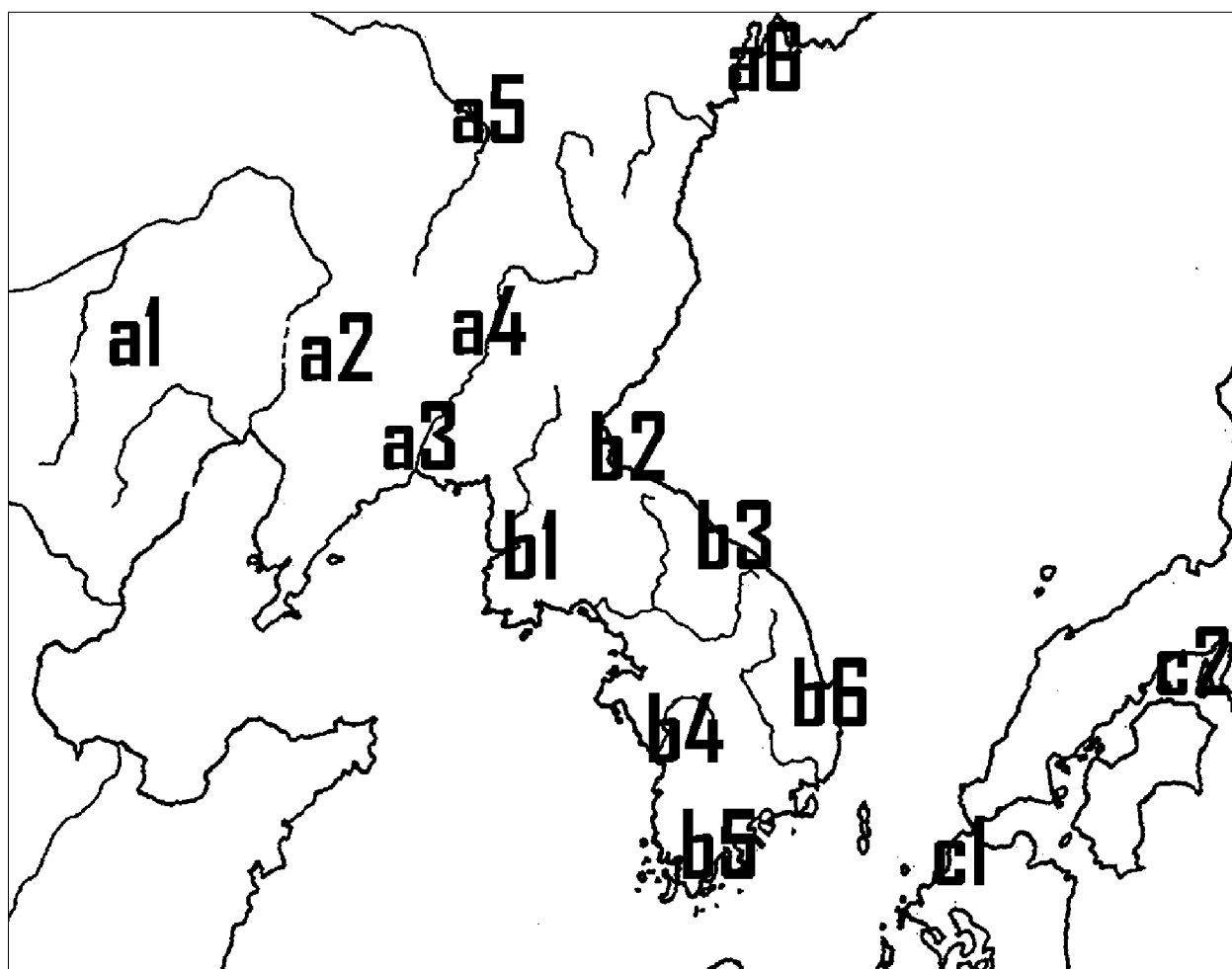
型式 地域	A 雷文	B1 無文	B2 葉脈 格子	B3 三角 平行	B4 三角 星形	B5 三角 星形 平行	B6 三角 鋸齒 圓圈	C1 三角 外區 祖形	C2a 三角 外區 1式	C2b 三角 外區 1式	C2c 三角 外區 1式	C3a 三角 外區 2式	C3b 三角 外區 2式	C4a 三角 外區 3式	C4b 三角 外區 3式	C5 三角 外區 4式	合計
a1(遼西)	4																4
a2(遼東)	1	1															2
a3(丹東)		2	1														3
a4(集安・通化)			1				2										3
a5(吉林)							1										1
a6(沿海州)							1										2
b1(平南・黃海)	3	2	1	1	2	1				2						3	15
b2(咸南)														2			2
b3(江原)									1		1	2					4
b4(忠南 全北)		1 1			1 5	3	4	3			1	2	1		4	1	27
b5(全南)					1					3	3		1	1	1		10
b6(慶尙)		(1)										1			1		3
c1(九州)										2		2	1		1	1	7
c2(近畿)										1		1					2
合計		9 7	3	2	8	4	8	4	1	9	4	8	3	5	5	5	85

〈表4〉 A, B, C型의 多鈕鏡 地域別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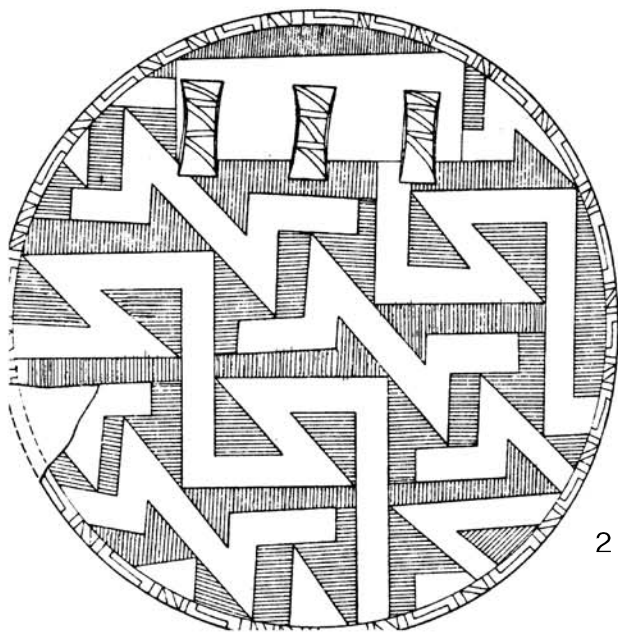
〈表5〉C型式多鈕鏡의 地域別 分布





地圖 1. 多鈕鏡 分布地域 區分

(a1: 遼西 a2:遼東 a3:丹東 a4: 集安·通化 a5: 吉林 a6:沿海州 b1: 平南·黃海 b2:咸南 b3:江原 b4:忠南·全北
b5:全南 b6:慶尙 c1:九州 c2:近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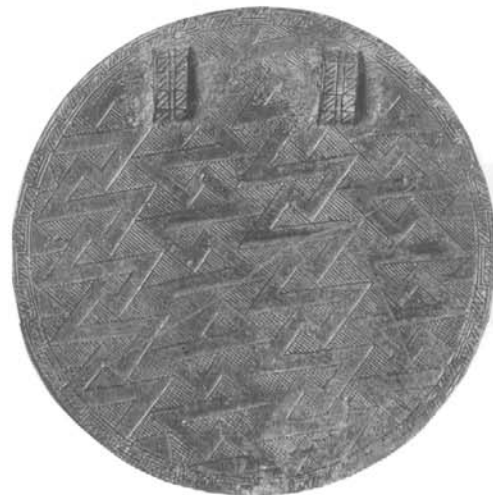
2



5



1



7



3



4

圖 1. A型 多鈕鏡(A:1,2,3,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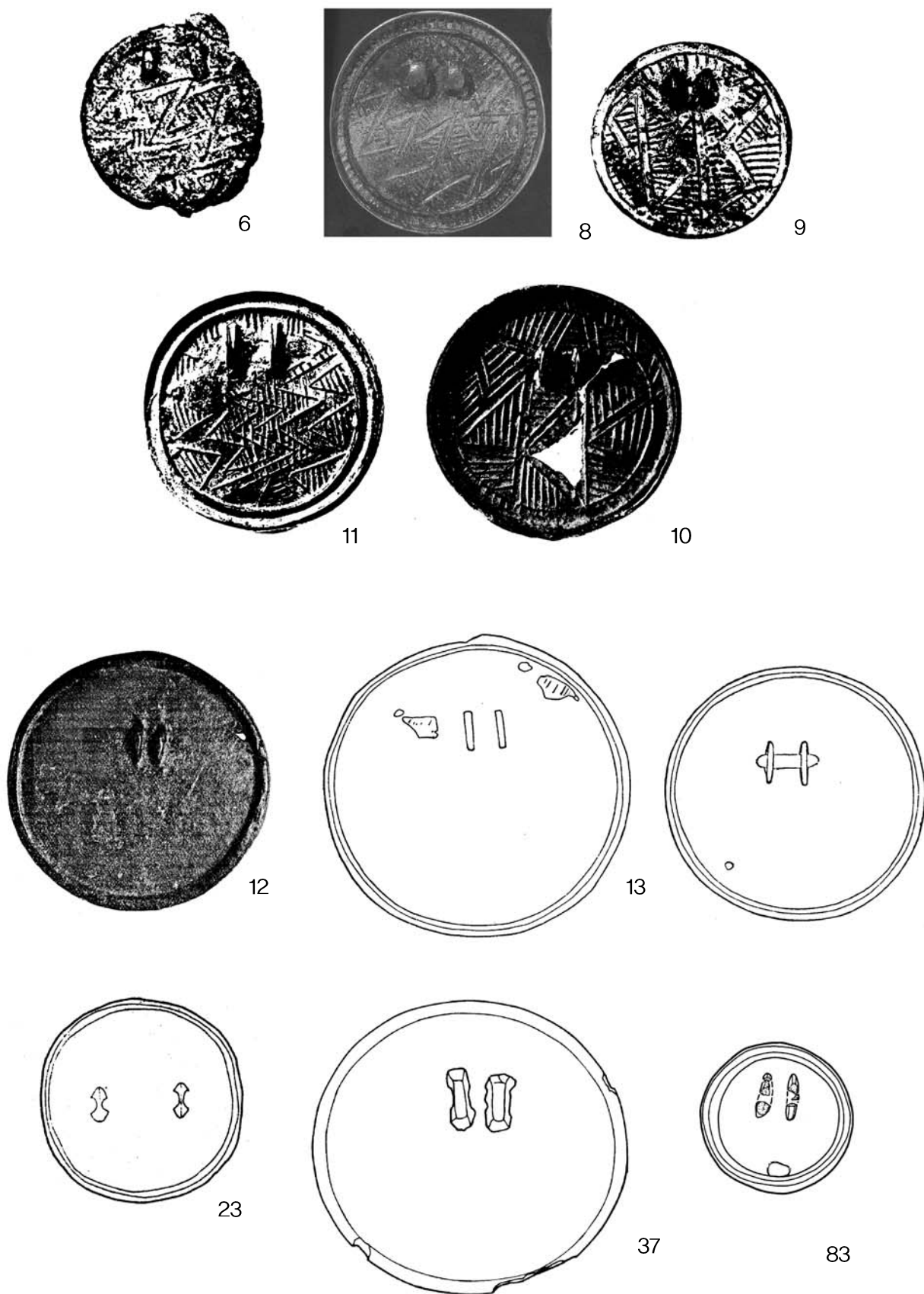


圖 2. A·B1型式 多鈕鏡 (A: 6,8,9,10,11/ B1:12,13,15,23,3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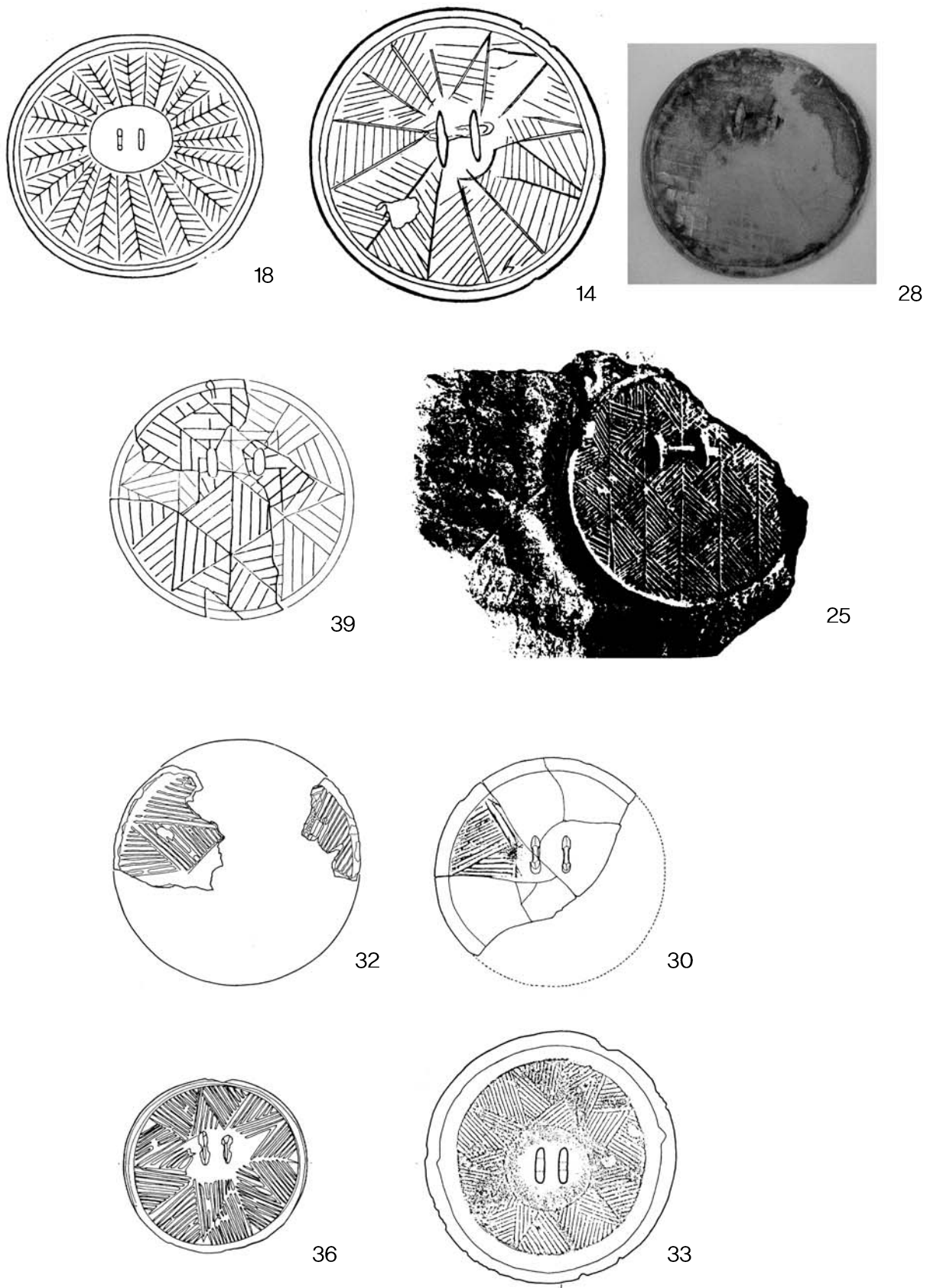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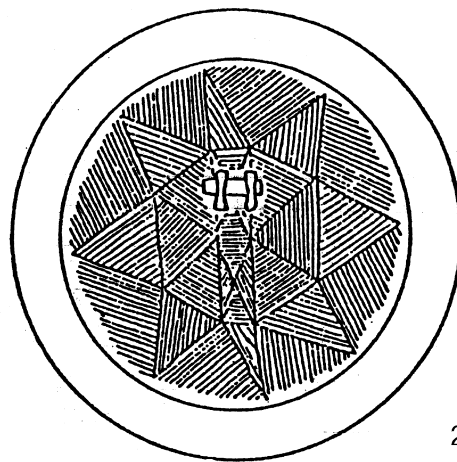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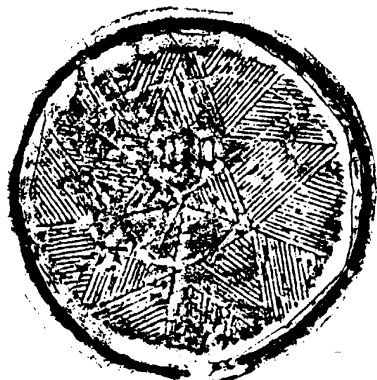
圖 3. B2 · B3 · B4型式 多鈕鏡 (B2:14, 18, 28/ B3:25, 39/ B4:30, 32, 3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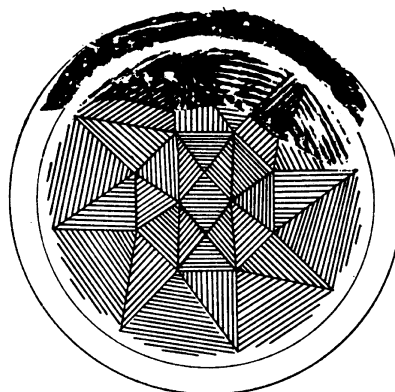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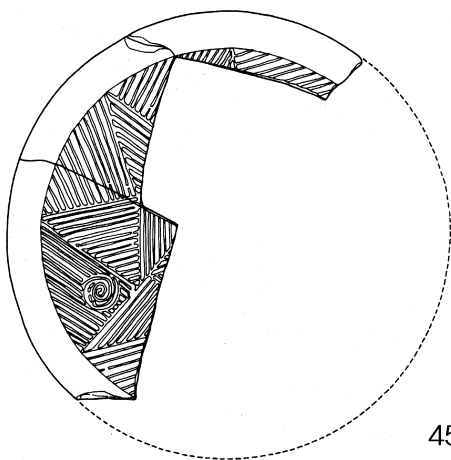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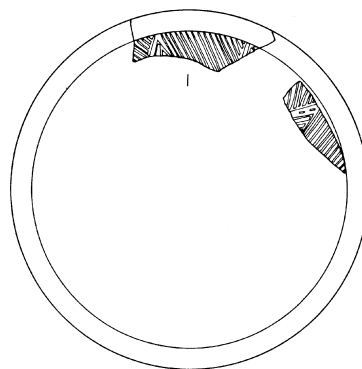
41



44



45



38

圖 4. B4型式 多鈕鏡 (B4:26,27,38,41,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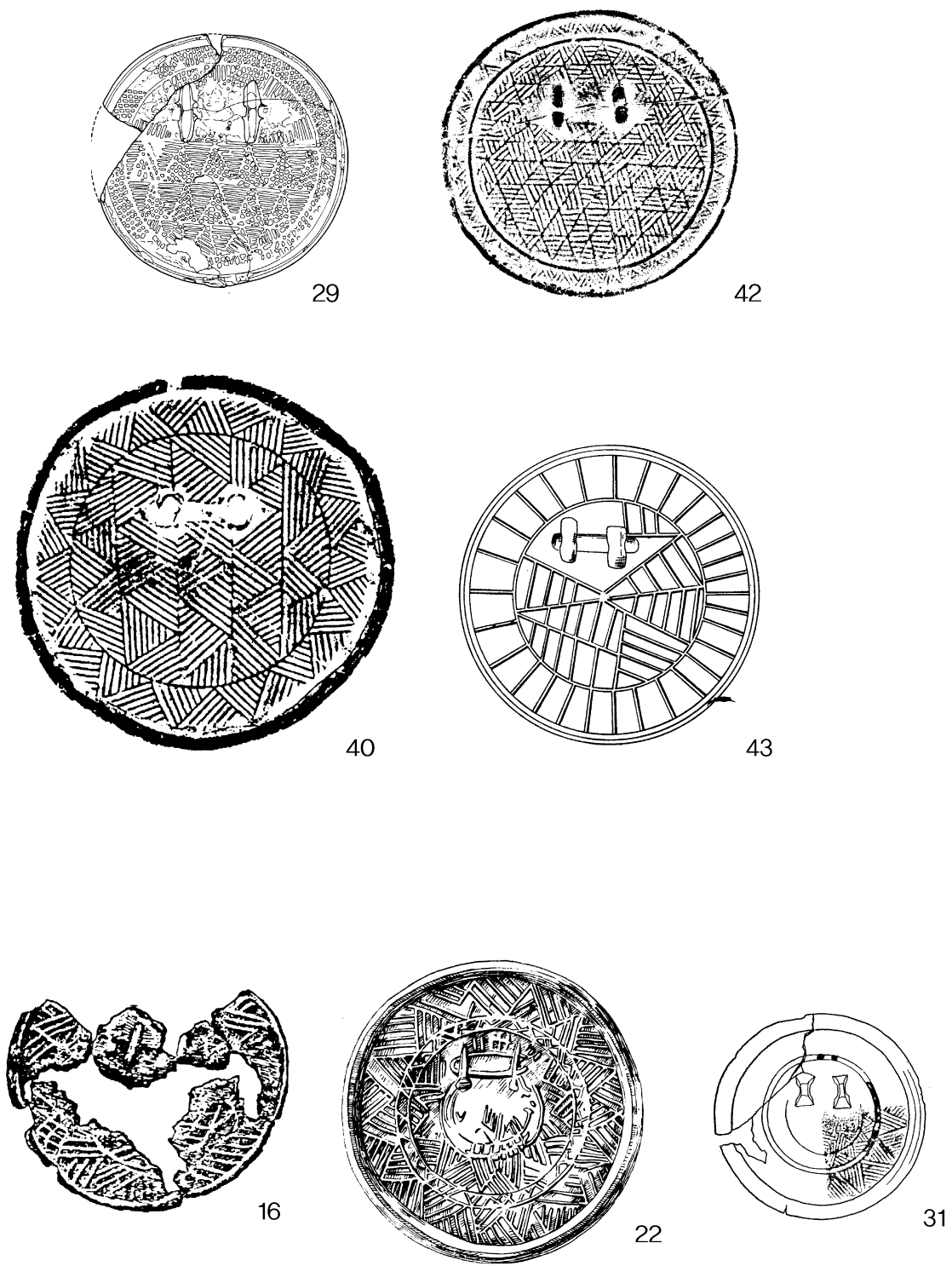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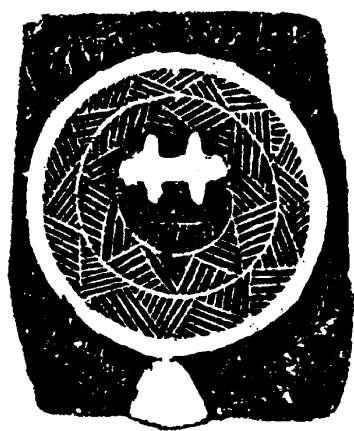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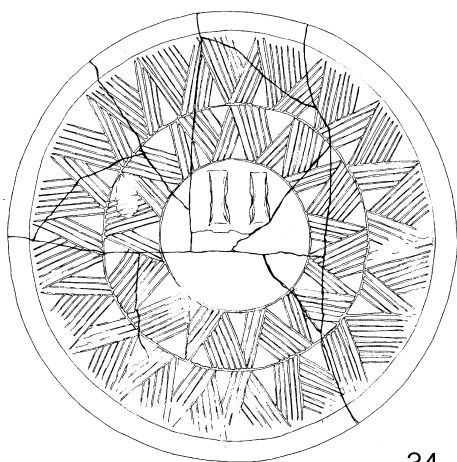
圖 5. B5・B6型式 多鈕鏡(B5:29,40,42,43/ B6:16,2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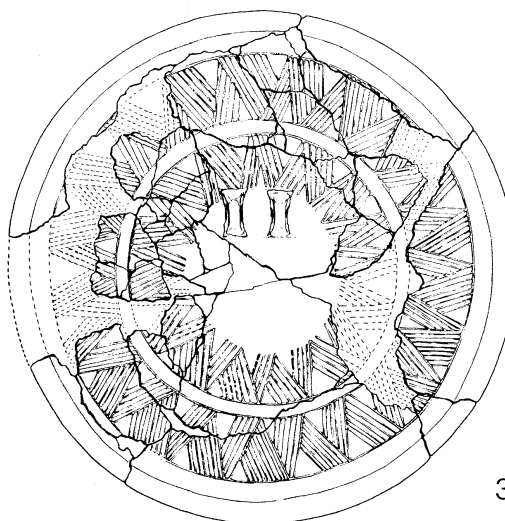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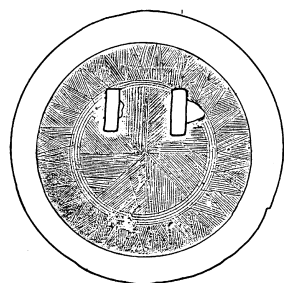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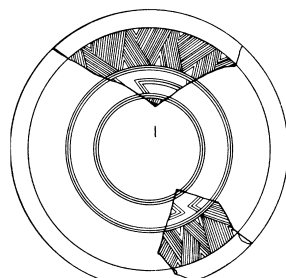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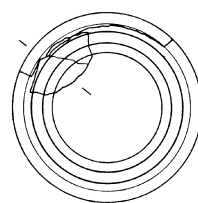
35



62



59



60

圖 6. B6 · C1型式 多鈕鏡 (B6:19,20,34,35/ C1:59,6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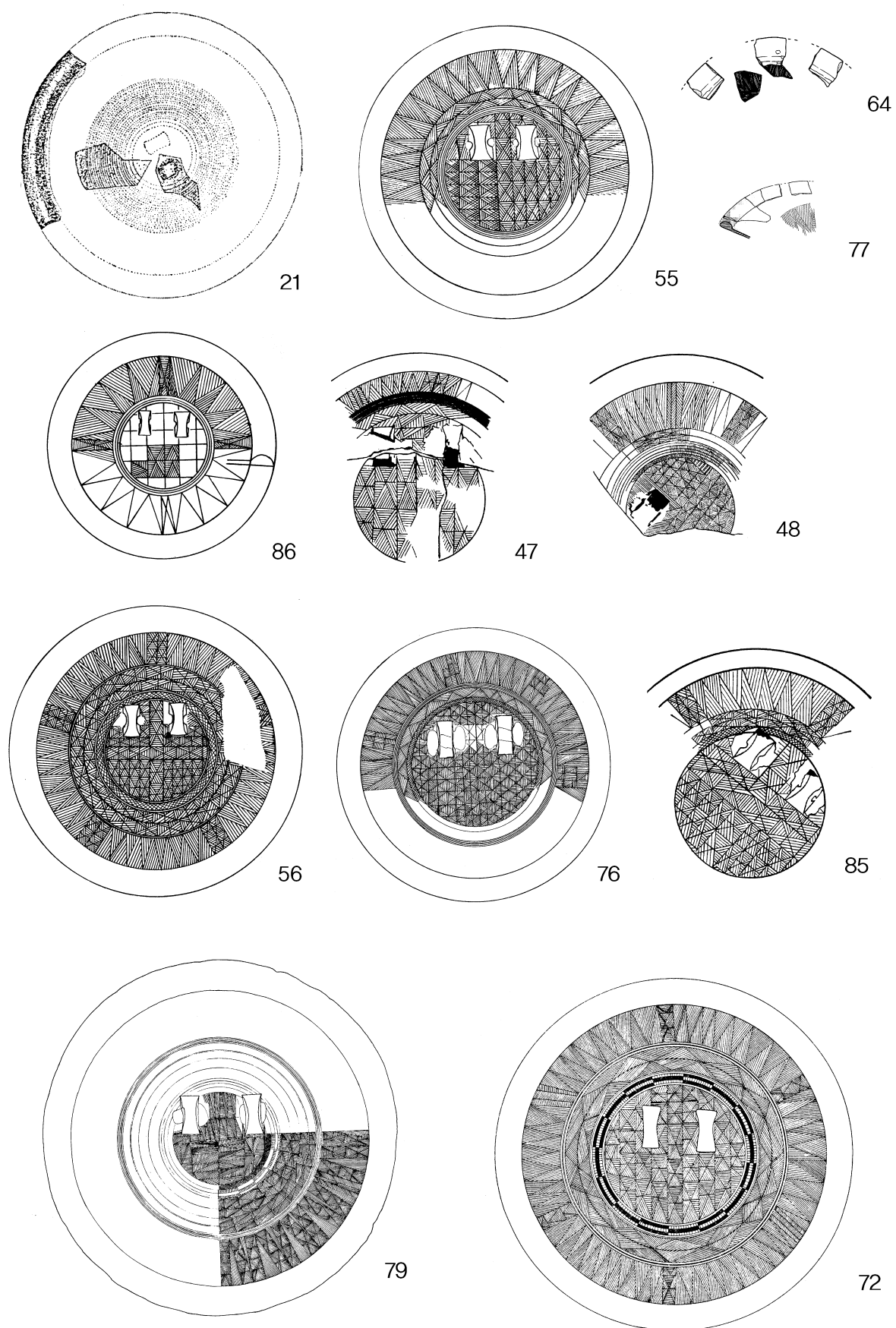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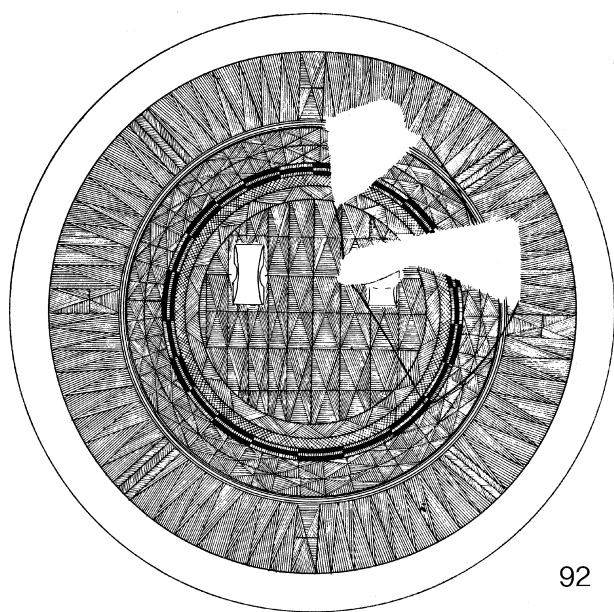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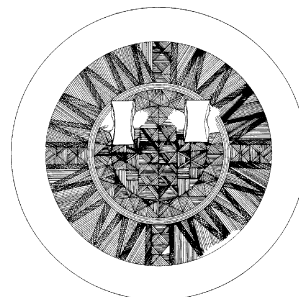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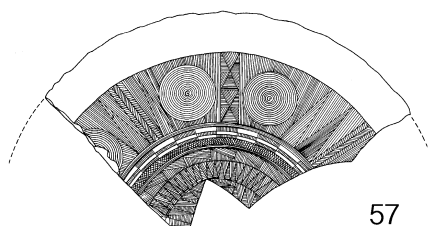
圖 7. C1 · C2型式 多鈕鏡 (C1:21/ C2a:55,64?,77?/ C2b:47,48,56,72,79,8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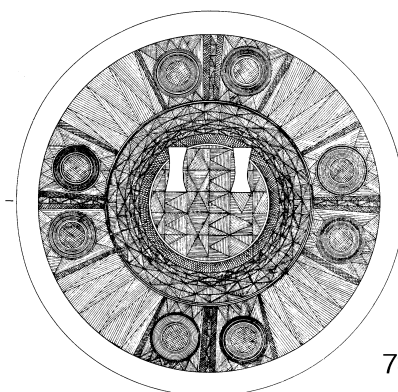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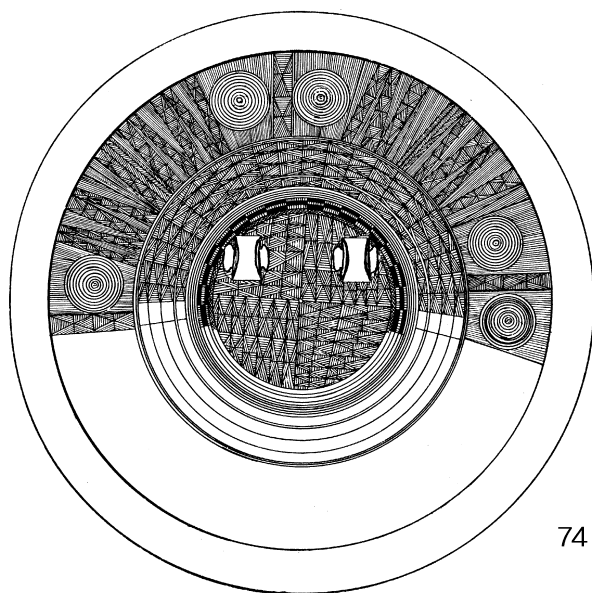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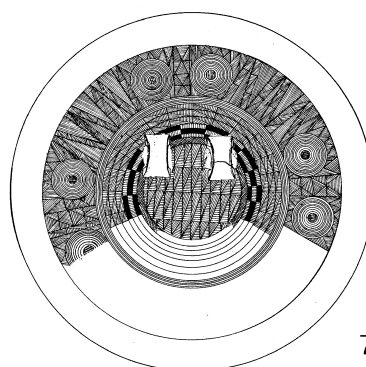
5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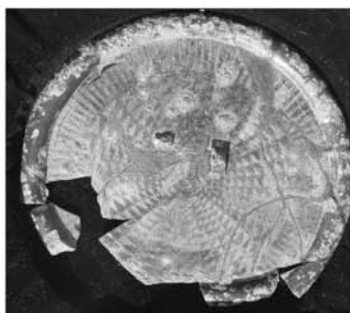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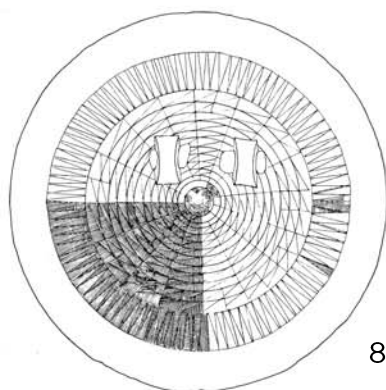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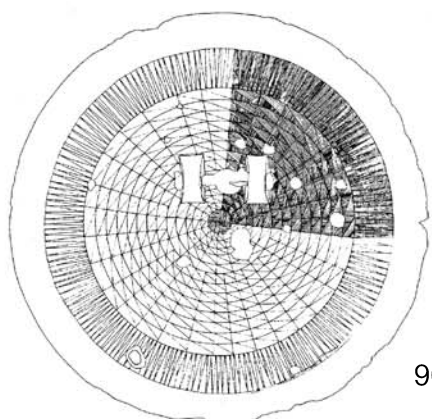
圖 8. C2型式 多鈕鏡 (C2b: 87,92/ C2c:57,71,7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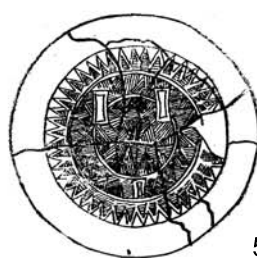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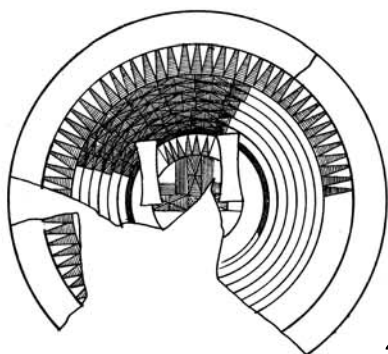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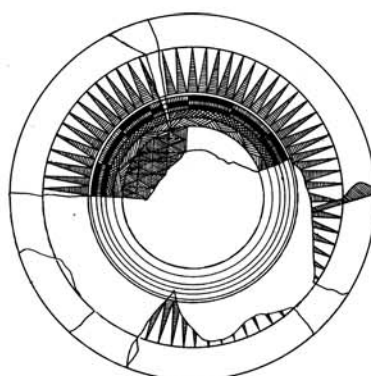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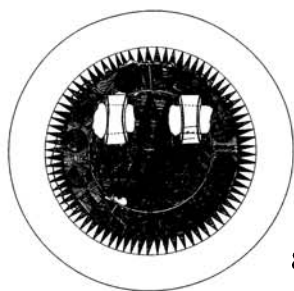
50



46



49



88



60

圖 9. C3型式多鈕鏡(C3a: 53,54,58,67,82,89,91,95/ C3b: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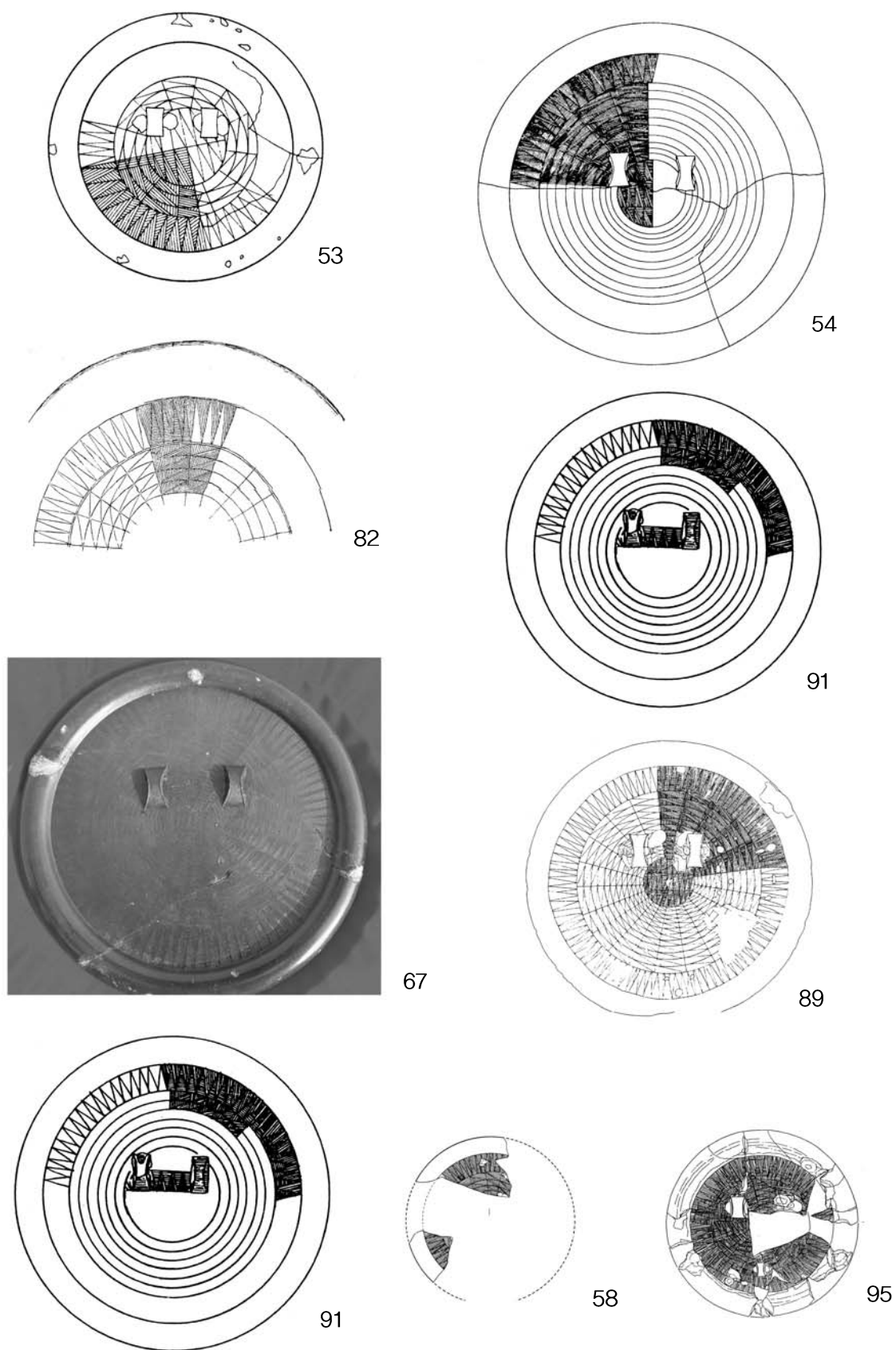


圖 10. C3 · C5型式 多鈕鏡 (C3b:80,90/ C5: 46,49,50,6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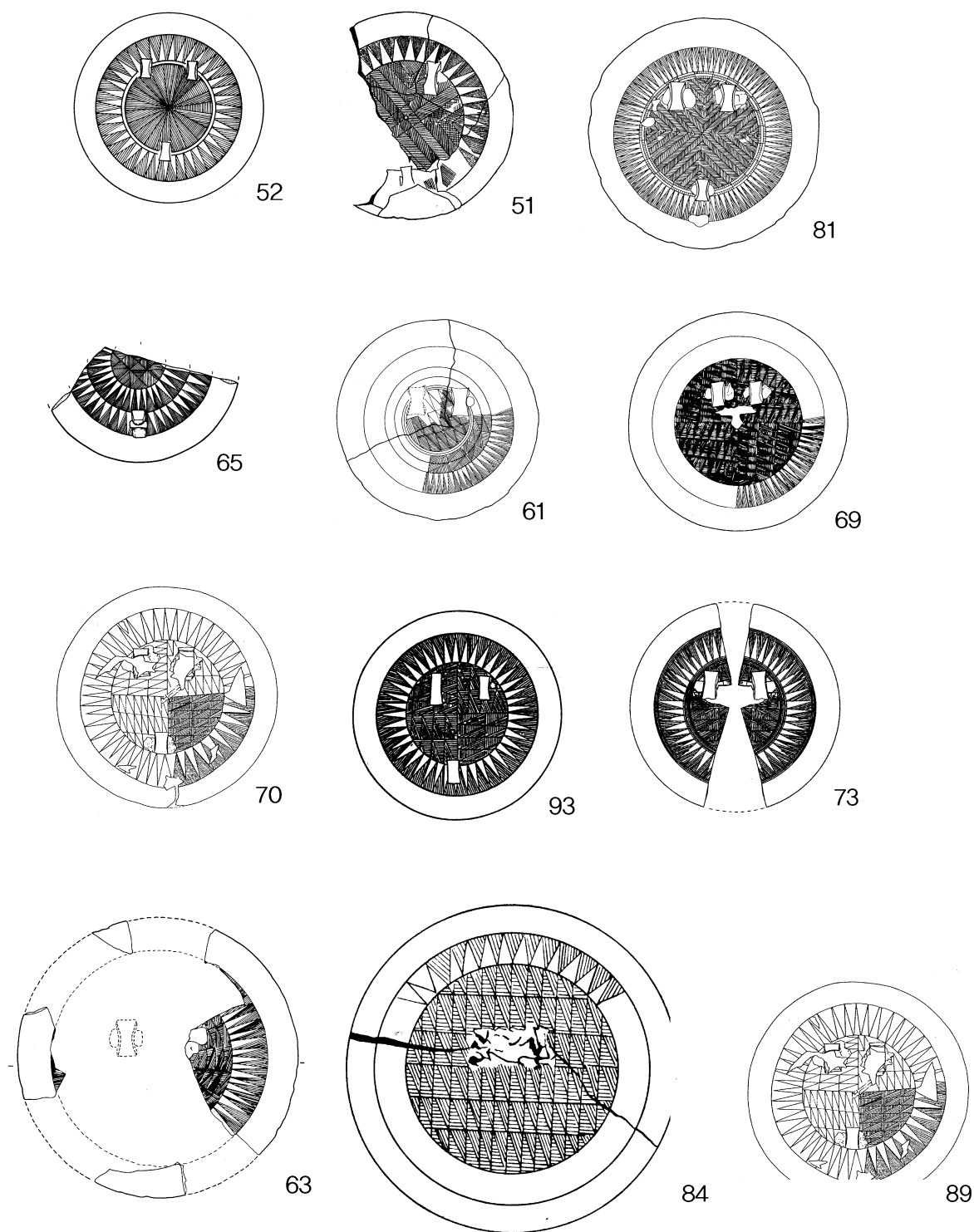


圖 11. C4型式 多鈕鏡 (C4a:51,52,81/C4b:61,63,65,69,70,73,84,93)

多鈕鏡の型式と分布

李清圭
譯：朴美賢

〈目次〉

- | | |
|----------|--------------|
| 1. 序論 | 3. 型式間の交流と分布 |
| 2. 型式の分類 | 1) 型式間の文様の交流 |
| 1) 基準 | 2) 出土状況 |
| 2) 内容 | 3) 地域別分布 |
| | 4. 結論 |

1. 序論

満州－韓半島－日本列島にかけて分布する多鈕鏡は宗教的な儀器として、当時の政治体の形成過程を説明する際に標識的遺物と理解される。そのような認識に基づいて当時の歴史の実体として地域集団の動向を詳しく見ていく際に、多鈕鏡の製作、流通を通じたネットワークの把握が重要である。しかしこれを直接立証する考古学的な証拠を確保することは難しいので多鈕鏡自体が持つ情報を最大に活用するしかない。

そうするためには製作に関わる自然科学的な観察と分析など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何よりもそれに適した型式分類が必要である。しかし、型式分類において上位の基準は一致しているが、下位のそれは学者ごとに様々な考えがあるため、統一した分類体系が確立されていない。これについて筆者なりの型式分類案を提出し、これに基づいて型式間の関係を説明しようとするのがこの論文の目的である。型式間及び型式内における系統と交流を探る作業は単位文様のみでなく、その組合せと構成等を通して可能である。しかし型式間の関係は製作を担当した工人、または地域集団間の交流を反映していると想定できるが、それは今後、別に検証する過程が必要である。また、型式間の分布とその関係について意味のある解析と説明は今後本格的に試行することとしたい。このようなことからこの論文は中間研究の成果物をいえる。論文執筆に当たり参照した多鈕鏡に関する主要研究論文は次の通りである。

宇野隆夫, 1977, 「多鈕鏡の研究」, 『史林』 60-1

全榮來, 1977, 「韓國青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全北遺蹟調査報告』 7

岩永省三, 1983, 「多鈕細文鏡再考」, 『文化財論叢－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張錫瑛, 1986, 「試論中國東北地区先秦銅鏡」, 『考古』 1986-2

甲元眞之, 1990, 「多鈕鏡の再検討」, 『古文化談叢』 第22輯, 九州古文化研究會.

板利祐子, 1993, 「多鈕鏡の様相と分布について」, 『研究紀要』 7, 北九州市教育文化事業團

平吹豊, 1999, 「多鈕細文鏡の研究」, 『國學院大學考古學資料館紀要』 15

李清圭, 1999, 「東北亞 地域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 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宮里修, 1998, 「朝鮮半島青銅器文化の研究」, 早稻田大學大學院修士論文

———, 2001, 「粗文鏡について」, 『史觀』 114

李陽洙, 2002, 「多鈕鏡으로 본 韓半島 南部 社會發展」,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004, 「多鈕細文鏡으로 본 韓國과 日本」, 『嶺南考古學報』 35

2. 型式分類

1) 基準

型式分類を行なう際に基準として考えられる多鈕鏡の属性は鏡の裏面に飾られた文様及び周縁部と鈕の形態などがある。これら属性は相互一定した相関関係をもっているため、どちらの属性を選んででも上位及び大分類体系はほぼ同じである。その中でも第 1 の基準として文様装飾を主に選ぶがその中でもどの属性を選択するかは学者によって意見が異なる。

ここでは単位文様の形態と線を第 1 基準で選択し、分類した多鈕鏡群を<型>と認識して A、B、C 型の 3 分類体系を設定する。A 型は粗い線の粗文鏡で、Z 字形の文様をモチーフとする鏡群である。B 型は多少粗い線の粗細文鏡であり、三角集線文を単位文様とする鏡群で、C 型は細線で施文した細文鏡で三角と四角の集線文を繰り返し施文した鏡群を指す。

一方、同様の<型>の鏡群を中分類して<式>を設定する場合、その基準を同じにすることが難しく、各<型>別で別途の基準を用いて暫定的に A 型を除いて B、C 型だけを中分類することとする。B 型の場合、C 型と異なり、単位文様が統一されていないあるいは定着していないため、まず鏡の全面から確認できる文様の形態と構成を考慮して分類する。

細文鏡 C 型を中分類する場合、学者によってその基準が異なる。内、外、中区ごとに多様に選択された文様単位とその組合せの中で何を選んで基準とするかによって分類が異なってくる。何よりも外区文様の基本となる連続三角集線文の文様単位を対象とした分類が容易であり、また各種類によって組合せられる単位文様に定型性を把握できるため、筆者は外区の文様帯を基準とする型式分類をすることとする。一方、下位型式の分類及び小分類は C 型に属する型式の中で基準が確実で、時空間的な変遷過程を説明する際に容易な鏡群の一部を対象とする。

2) 型式分類の内容(表 2 多鈕鏡 目録 参照)

上に提示した分類基準によって型式分類を行うと下のようになる。

A 型：粗い線で Z 字形の稲妻文様を施文

B 型：多少の粗い線であらかた三角集線文を単位として一つの文様を施文

1 式 - 文様の施文が全く無い

2 式 - 全面に放射状葉脈文及び格子文を施文

3 式 - 全面を平行線で区画して三角集線文を施文

4 式 - 区画が無い三角集線文を周縁の周りに施文して中心は空白または四角集線文で満たす

5 式 - 外区と内区で区画され、三角平行集線文を内区に配置

6 式 - 三角集線文が円圏の 2 区で分かれ上下交代で施文

C 型：細線で三角と四角の集線文を定型化した単位文様として密集施文。

1 式 - 縁部と紐、細線文様は典型的な細文鏡の属性であるが、定型化された文様が施文されていない

2 式 - 三角集線文を上下を異にして外区に施文し三つの下位型式がある

3 式 - 外区の連続文様の中で鈕が周縁に向かう三角形の内部を下辺に平行した集線で満たして施文、二つの下位型式がある。

4 式 - 3 式の外区の連続文様の中で紐が周縁に向かう三角形の内部を空白にして施文。二つの下位型式がある。

5 式 - 3 式の 外区の連続文様の中に鈕が中心に向かう三角形の内部を空白して施文

(1) A 型

Z 字を変化させて連結した文様を鏡の全面にわたって施文した型式で、周縁部が別に組成されていない。鏡の全面にわたって内部を空白にした二重線で Z 字形のモチーフを連続して施文し、背景を平行集線で埋める。

Z 字文様が連続する部位の文様帯が直角になっているものがその初期の原型で、朝陽十二臺榮子と、本溪良家村の例がここに属する。連結部位が斜線になっている鏡は、後期型で、寧城小黑石溝と建平大拉罕溝と炮手營子が代表的な例である。Z 字の文様が乱れ始め、余白を埋める平行集線文もその定型性を失う例が、沈陽鄭家窪子である。さらに、完全にその基本形をなくした例に平南成川と伝忠南の例がある。これらの変形の粗文鏡は周縁部を形成しながら、鈕の形態が乱れ、鏡の中心側に向かって下がる傾向が見られる。

要約すると、その Z 字形の文様が定型性を次第に失っていき、変遷過程は朝陽 十二台營子－寧城 小黑石溝－平壤 新成洞－伝 忠南の 4 段階に整理する事ができる。

(2) B 型

①1 式

周縁部が三角突起の断面になっており、全体の形は B 型の他の式と類似しているが文様が無いことが特徴である。直径 5 cm の慶州朝陽洞の例が小形の倣製鏡で認められる。全南靈岩の范の例は 周縁部の断面が半円形の無文鏡に見えるが、完成品ではないものと判断される。

②2 式

断面突起形及び半円形の周縁部を持っており、環形の鈕が鏡の中心付近に設置されている。鏡の全面にかけて線で施文した文様のモチーフによって不定型性が明確である。

丹東趙家保の例は真ん中にある鈕を中心として放射状に大まかな線を引きその間を多くの列斜線を施文した。集安五道嶺溝門の例は放射状の線を中心軸として葉脈あるいは魚骨紋の形状で施文された。黄海沿岸小雅里の例は鏡全面にかけて格子文を配してている。各例が別途の下位型式で分類できるが、ここでは留保する。

③3 式

鏡全面を一定の間隔で平行して、多少細い線で区画した後、その間に底辺を別にしながら三角文を施したものである。三角文の内部は一辺に平行するようにいくつか列の線で満たしたことで A 型や B 型 2 式は異なり単位文様としての枠組が十分整った。このような三角集線文は大部分の B 型と C 型全体を構成する単位文様として同型式はその始原的祖型に該当しているといえる。平南盟山鎔范と全北の出土例がある。

④4 式

三角集線文が鏡の鈕を中心として巡り、施文されたもので、全体的な配置が星の形になっている。一方の長辺に平行するようにいくつか列の線で内部を満たす三角集線文を上下を噛み合せながら連続的に施文した。周縁部が突起形の断面の場合、鈕を中心とした内区の部分は空白の状態、夫餘 蓮花里と大田 槐亭洞 1 式が代表的な例である。

周縁部が断面円形で発達した鏡の場合、その中の多数が中心部にも一定な単位文様を満たす。四角形の 4 つの軸を結んで対角線を引いて組成された三角形の内部を平行な集線で飾った四角集線文が登場する。長辺あるいは下辺に平行した集線文の二種類があって、これらの四角集線文の単位文様が細文鏡 C 型の内区、中区、外区に收容される場合もある。伝 平南 盟山の鎔范と全州如意洞の例がこれに属する。文様の構成と変遷過程から見ると、1 段階の蓮花里式から 2 段階の如意洞式へ発展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⑤5 式

周縁部の近くに 1 条の線で幅が狭い外区を別に区画した内外区の 2 区型式である。典型的な例は全州如意洞の鏡で、内区には B4 式、外区には B5 式の文様を融合した型式といえる。伝京畿連川の例は、外区に斜格子文を施して B2 式と B4 式を融合した形状を見せている。益山五金山鏡は外区に粗く短い垂直線を配置して内区もまた粗線で構成された不定形の三角文を配置した形状を呈しており、早い段階のものとも見て取れるが、典型的な例を粗く模倣したものと理解することもできる。

⑥6 式

基本的に外、中、内区の 3 区の構図をとっているが内区には文様が無いものや、有っても定形化されていない。外区と中区に三角集線文が装飾されているが、三角形内側に充填された平行集線文がまばらな形状である。早い段階に非定形化された例が吉林樺甸西荒山屯と沿海州イズベストフで確認したところ、周縁部が断面突起型を呈している。より定形化された形態の通化出土模型と牙山南城里の例を見ると、周縁部の断面が半円形で次の細文鏡 C 型に近接している。概して文様の形状から集安 五道嶺溝門—通化—牙山南城里の順で発展したと見られる。

(3) C 型

①1 式

周縁部が細文鏡に見られる半円形断面を呈しているが、典型的な細文鏡に移行できない過渡期的な型式である。これに属する夫余東西里 4 鏡は上下交差した連続三角集線文帯の外区を揃えて、内区に三角集線文を放射状に施したものである。夫余九鳳里の例は 3 区で構成され、外区に三角集線文を備えているが、中区は A 式に見られる Z 字形文で構成される。また他の夫余東西里 5 鏡と沿海州シュコトウワの鏡は同心円文だけ確認された。同心円で構成されている円圈帯は C 式の他の下位型式で収容される属性である。

②2 式

B 型の粗細文鏡の外区文様の系統に従った型式である。基本的に内側を平行線で満たした二等辺三角形文を上下を交差させ、連続して施文した三角集線文帯を外区にもつ。三角形内側に満た列をなす平行線が三角形の一方の長辺と同じ方向で、中間区にも外区と同じ構図の三角集線文帯が装飾されている点は牙山 南城里の B3 式のそれと同じである。内区には B5 式の伝平南 平川と 中和鏡で起源した定形化された四角形集線文が満たされている。長方形の場合はその内側を対角線を区画し、平行集線文を施すが、その長方形を半裁した形状の方形集線文もある。また円圈文が中間区に追加される場合もある。

この基本型式が発展して外区に四角集線文や同心円文の単位文様を一定な間隔で追加した下位型式がある。四角集線文を追加した場合は中間区に施された文様は三角集線文ではなく、同様の四角集線文という点が共通している。内区の文様も四角集線文で統一され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

外区に同心円文がある場合は先に外区の四角集線の区画文と一緒に施文されて、中間区と中心区にも四角集線文が施された例が多い。四角形の内側の二つの頂点を結んだ対角線で半裁して平行集線で満たす単純型の四角集線文も施文されている。これは次に説明する予定であるが C3 式の中間区と内区の基本単位文様として同型式で借用した可能性が高い。このような単位文様の組合関係からみて同型式は純粋三角集線文帯の外区を持つ江原 原州 1 鏡の C3a 式—四角集線の区画文を、外区に配置した九州 宇木汲田の鏡の C3b 式—四角形と同心円の区画文を外区に配置した和順 大谷 里 1 鏡の C3c 式の 3 段階に発展するとして整理できる。

1 段階で内区に施された四角集線文が 2 段階で外区と中間区で拡張された現象が見られる。また 3 段階で外区に同心円文が追加されたことは他の 3、4、5 型式では見られないため自体発展

といえる。一方 2 段階の咸平草蒲里の例のように頂点の 2 個所を結んで半裁した単純な四角集線文を単位文様として内区に施したのは襄陽釘岩里の鏡のように C3a 式から借用したと理解できる。C3c 式から見られるように、すなわち二等邊三角形の底辺と同じ方向で内部にいくつかの例で平行線を満たす三角集線文の外区と方形集線文で中間区と内区を施文した C3c 式がすべて 3 段階の唐津 素素里の鏡には内区の 文様組合で借用された。

③3 式

外区に二等邊三角形を下辺を上下に変えて行けば連続で外区を飾ったことは先の 3c 式と同じだ。しかし鏡の中心へ向かった短い下辺と平行するように三角形の内部を集線で満たしたのが違う。中間区と内区にもまた下辺と長辺に各々平行した集線を満たした三角文 2 条を上下接合させて構成された四角文を基本単位文様として装飾される。このような単位文様はこの 3a 式の基本形から本格的に形成されたと見られる。

したがって C2 式が B 式の伝統から相対的に大きく逸脱しないことは異なる。また外区、中間区、内区が類似の形態の単位文様で統一されているが、他の型式の単位文様がほとんど借用していない点特徴的だ。そういう点からまた外区に四角集線文とか同心円文が追加された C2 式と差別される。

襄陽 釘岩里の鏡には三角文の中に満たされた平行集線文が t 入底辺と完全に同じ方向ではないが、C2 式の伝統から逸脱しない形状である。中間区は同型式の相当数が 10 例を超えている。中間区の列が多くなるほど内区の面積は狭くてなって、咸平草蒲里 2、全州孝子洞、山口梶栗浜の場合は内区に最初から四角集線文さえも満たしていない。このような下位型式の変化を見る際に同型式の 1 段階は中間区が 3-10 であるが、内区の文様帯が正しく備わった横城講林里、2 段階は中間区が 10 条以上で、内区がほとんど省略されている全州孝子洞の例がそれぞれ該当し、C3a、C3b 式として整理できる。

④4 式

前の C2 式または C3 式の例で外区の上下を互いに取り替えながら連続施文された三角文の中で内区側を短い底辺とする三角文の内部が満たされていない型式である。他の型式と異なり外区と内区の 2 区の構成が基本形を成し、相対的にその数は多い。

内区に満たされた文様は全体を放射状に巡る十字状に区画した後、区画された内部を一定に平行したいくつかの列の線で満たした型式が基本形である。これと類似した 2 区型式の細文鏡の伝統は夫餘合松里出土例から見られるが、外区に三角空白文を配置した事がそれと異なる。直径が 8-9cm 程度に過ぎない小型で、鈕が 3 個ある点が違う型式と区別できる。

この C4 式の相当数は外区と内区だけで構成されている 2 区型式であり、前の C3 式で流行した 2 条の三角集線文が組合した四角形の単位文様を内区に満たしたのである。この単位文様は C3 式が同文様のみで構成されたことから、同型式から借用されたと見られる。外、中、内区を備えた 3 区型は前の C3 式のように中間区と内区に 2 条の三角集線文が組合わさった四角文で構成されているが外区でのみ差異が生じているのみである。これも C3 式から内区、中区の構成と単位文様が借用されたことで理解される。3 区型式の中で、例外的なものに論山院北里出土例がある。中間区また外区のような文様帯で構成されており、内区の単位文様は対角線で区画された四角形集線文で構成されている。

要約すると C4 式の 1 段階は、2 区型で内区が単純区画文で構成された咸興梨花洞例がここに属し、2 段階または、2、3 区型として長水 南陽里の例のように内区の文様構成で 2 条三角文組合 四角形集線文が採択されたと整理できる。

⑤ 5 式

外区の文様を構成する三角連続紋の中に、銅鏡の周縁部に底辺が面した二等辺三角形の内側を空白としたものである。内区側を下辺にして、三角形の内側を平行集線文で満たした点は先の 3 式と同じで、4 式とは内部を空白にした三角文の位置が変わったことが異なる。

基本的に外・中・内区の 3 区型式をとっており、2 区型式が基本形の C3 式とは違いが生じる。また、内区と中区の単位文様は内部を対角線で区画した四角集線文で満たされ、中間区上下を異にする三角集線文帯を採用した点では C2 式と通じる。福岡吉武高木の例をみると、中間区に同心円文と四角集線文が施文されているが、これは C2c 式の外区文様を借用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外区文様からみると、C3 式から始まったように理解されるが、現在まで資料として中間区と内区の文様構成からみて、C2 式に近い。

一方、外区の三角集線文の外側の線を二重にした黄海龍山里と完州葛洞 2 鏡の例がある。基本的に 3 区型式である点は、先ほどと同様であるが、葛洞の例では中区に C3 式の外区文様帯を収容している点が例外的である。葛洞の例は他の C5 式と異なり、小型に 3 鈕型式でもある。

4. 型式の系統と交流

1) 単位文様の融合と継承

A 型の粗文鏡では、Z 字形の文様のみがモチーフとして選択され、自主的な変形のみが起こるだけで、別途の文様要素が追加されたり、借用されない。そして、B 型では A 型の Z 字形モチーフの背景を満たす三角集線文が主文様として変貌する。無文様の多鈕鏡 B1 式と過渡期的な B2 式を除いては、B3-6 式の全部が三角集線文を主文様としている。

B4 式は B2 式の文様を内区に B3 式の文様は外区に収容され融合した型式で、これら B 型式から採用された三角集線文は、さらに次の C 型の主な単位文様に継承されることは、先に指摘した通りである。B2 式の斜格子文と放射状葉脈文は C 型の主文様への継承がほぼなされず、間欠的に C 型の外区区画文に採択されるのみである。

典型的な細文鏡に移行する以前の C1 式の段階には、A 式と B 式にみられる単位文様が一部採択される場合もある。そして、C 型のいくつかの型式からまれに B 型の内区に採択される単位文様が登場する場合もある。典型的な細文鏡は外区に配置された三角集線文のパターンにて 4 種類に分けられるが、各下位型式別に一定の相関関係を維持して中区と内区の文様もまた基本組合せも一定の違いをみせている。C2、C3、C4、C5 式に分類される型式は、それぞれの原理に基づいて単位文様と組合せ方法を選んでいる。これは工人集団ごとに文様の設計案をもっており、その伝統と原理を固守したことを反映するものと理解される。

C2 式の場合、基本的に B4 あるいは B6 式の外区文様帯の伝統にしたがって B5 式の内区単位文様を収容した。自主的に外区に四角集線文と同心円文を追加し、より複雑で洗練されて発展したが、型式上最も近い C3 式の文様要素は、新しい段階に一部借用されたのみである。

C3 式もまたほとんど異なる型式から単位文様を借用していない。中区と内区に選択された単位文様は、基本的に自主創案されたものとみることができ、新たな文様をほとんど追加せず、ただ中区の文様帯を拡大しつづけるのみである。

C4 式はその基本型が 2 区式から出発しているが、C4a 式の一部は B 型多鈕鏡あるいはそれと共伴する円蓋形銅器の主文様を収容したものである。内区の単位文様を主に C3 式から借用する。C2 式からはその内区の単位文様を一部借用するのみで、外区の同心円文と方形区画文は収容していない。つまり、C2 式の文様はほとんど借用せず、C3 式の文様のみを主に借用したのである。

これとは対照的に C5 式は、中区と内区で基本的に C2 式の文様を借用する。福岡吉武高木の例のように C2 式の同心円文と方形区画文の外区文様をそのまま中区から借用したりもする。このような C 式の各型式間の関係を図式化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

< 表 1> 細文鏡各型式間の相関関係

	C2	C3	C4	C5
C2		O	X	O
C3	O		O	X
C4	X	O		X
C5	O	X	X	

(融合あり：O, 融合なし：X)

2) 出土状況

多数の遺物が一定遺跡で共伴したとすれば、それは同じ時空間的位置に属するということとは言うまでもない。しかし、出土する脈絡により製作、使用、廃棄のうち、どれかの段階の同時性が付与される場合とそうでない場合がある。同時に使用されてが、製作時点や製作空間、さらには製作集団が異なることもありうるし、または廃棄が同時になされたとしても、使用あるいは伝世期間がそれぞれ異なる可能性もある。

まず、同時に製作されたことが分かるものとして、鋳型の前後面に鏡の枠が成形されている伝平南孟山出土の事例がある。B2 と B3 式は枠が前後面にあるため、2つの型式の鏡が同時に1つの場所で1つの工人集団によって製作されたことが分かる。しかし、2つの型式は基本単位文様は同じであるが、文様構図に大きい違いがあるため、当初それぞれ異なる工人によってアイデアが創案された可能性を全く排除できない。

同じ遺構に同時に埋納されたり副葬された状態で出土することは、廃棄された時点と場所が同じであるということをも物語っている。この場合、共伴した遺物が製作手法が異なる B 型と C 型のように、最初から他の型や同じ<型>ではあるが、C2、C3、C4、C5 式のように中位型式が異なる場合、または同じ C2 式であっても C2a、C2b、C2c などの下位型式が異なる場合がある。

最初の例のように、その<型>が異なるため製作技術に違いを見せる場合は、工人集団が異なったり同じ工人集団によるものであっても、または製作された時点が異なる場合である可能性がある。礼山東西里積石木棺墓の場合がその代表的な例で、B4 式と C1 式が共伴している。前者は B 式の新しい段階、後者は C 式の古い段階のものと推定されるため、大きな伝世期間の差があるように見えない。

大田 槐亭洞の例を見ると、同じ墓で B3 式と B5 式が共伴した。そして全州如意洞では B3 式と B4 式が共伴しており、文様を除いては相互に製作手法と形態が似ている。型式が異なるため他の工人集団によって製作された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か、先ほどの平南孟山出土例にみられるように同じ集団によって製作される場合もあるのである。

同じ C 型であり、中位型式が異なる鏡が共伴出土した例として、咸平草浦里の例がある。C2 式、C3 式、C4 式の 3 型式の銅鏡が共伴しているが、相互の単位文様が交換された様子を見せていない。それぞれ異なる工人集団によって製作された可能性が高いが、他の地域から遠距離交易によるものであるか、同じ地域内ですべて製作されたのかは確実でない。また、中位型式が異なる鏡が1つの墓から出土した例として唐津素素里がある。C2 と C3 式が共伴している

が、前者の場合、珍しい C3 式の内外区文様をすべて借用した新しい段階の C2c 式である。この場合、同じ地域で多少の時点を異にして製作された可能性も充分考えられよう。

同じ中位型式に属するものの下位型式が異なる例が、1つの墓に副葬された例として和順 大谷里がある。C2b と C2c が共伴しているが、この場合もまた多少の時差を置いて1つの工人組織によって製作された可能性が最も高いのではないかと推定される。

共伴した多数の遺物が、相互に同じ型式である場合、製作の時点と場所はもちろん工人集団も同一であると判断される。1つの土器の中に重なって埋納された福岡若山の多鈕鏡は、同じ C3c 式であり、そのような代表的な例である。牙山南城里の B6 式鏡 2 枚が副葬された例もまたそうである。

このような出土した脈絡を総合してみると、銅鏡の製作から使用、伝世、埋納あるいは副葬にいたるまでの過程は単純ではない。同じ地域で製作集団が同じである場合から、他の地域で他の製作集団によって製作されて流通した場合、そして製作から一定の時差がある場合など多様である。つまり、大部分の生活用品が製作と消費過程が近距離で一定集団によって行われていたことと大きく異なる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る。

3) 地域別分布

A 型の鏡は西は内蒙古寧城から遼寧建平、朝陽など遼西地域に最も多く分布し、遼東と平南、忠南地域にまで分布する。その細部型式の差と変遷過程からみて、遼西の大凌河流域に起源し、西は建平と영성에、東は遼東地域を越えて韓半島に伝播したものと理解される。遼西地域の一部を除いて各地域で発見される鏡は、現地の技術で模倣した製品と推定される。つまり、鏡自体の流通が遼東と韓半島が遠距離にあるためなされず、模倣して製作したのである。A 式の古い段階は朝陽十二台營子と本溪梁家村の例を通して典型琵琶形銅劍、新しい例は沈陽鄭家窪子、平壤新成洞の例を通して変形琵琶形銅劍段階に属するという事実が確認される。粗文鏡から細文鏡への過渡期段階である B2 式は、丹東と集安、黄海で各々1 点ずつ確認されているのみである。そして、三角集線文を単位文様にした典型的な粗細文鏡である B3、B4、B5 式は満洲ではみられず、韓半島の平南、黄海の西北韓と忠南と全北の西韓国を中心に普及する。その中で、B5 式は B3 式と B4 式が融合したもので、現在まで資料としては忠南、全北の韓国西部地域に集中分布する。

円圈で区画し、外、中、内区を持った B6 式は、前の型式とは異なり、吉林と沿海州、そして韓半島の忠南、全北に普及する。前者が鴨緑江流域－西北韓－西南韓、後者が満州東部－西韓国につながるという異なる分布様相をみせるといえよう。

B6 式はその初期型が満州と沿海州で確認されることから、同型式の発源が満洲地域にあ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それは、B5 式が韓半島で発生した可能性が高いことと対照である。一方、その時期をみたばあい、B 型の上限は B2 式の丹東趙家堡と B3 式の伝全北の例から、細形銅劍初期に属し、おおよその下限は牙山南城里で B6 式鏡と共伴した青銅器の例から、細形銅劍前期と推定される。

これら典型的な B 型の粗細文鏡が製作・普及する西北韓と西南韓を中心に、次に C 型の細文鏡も集中普及したが、特に B 型の 3 系統がすべて出土する忠南、全北地域で細文鏡の初期型式を含むすべての型式が出土する。

粗細文鏡である B 式から細文鏡である C 式段階への移行を示す C1 式に属する鏡として、礼山東西里と夫余九鳳里の例があるが、この地域で新たな技術の革新を通して、同型式の銅鏡が製作・普及したものと考える。沿海州地域で同心円文の C1 式が確認され、初期細文鏡への移行が同地域で全くなされなかったとは考えにくい。しかし、これまで確認されたら資料から、典型的な細文鏡 C 式の普及は、同地域を含む中国東北地方ではなされなかったことは確実である。

C2 式はその初期型である C2a の場合、その分布が限定されている。しかし、外区に四角形区画文が付加装飾された C2b 式は、清川江以南の全地域と日本列島にまで広く分布しながら、特に平南、黄海、忠南、全北に相対的に多い。ところが、外区に同心円文が付け加えられた C2c 式は、和順と靈岩など全南地域に集中する現象をみせている。同型式が忠南地域でも確認されるため、両地域を合わせて製作・普及した地域型という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な事実をみた場合、本格的な C 型はその祖型である B 型が集中普及する地域を拠点に製作され、周辺に拡散しながら一定の過程を経て、その地域型である C2c 式が全南を新しい拠点にして製作・普及したものと理解される。

C3 式も韓半島と日本列島に広く分布するが、現在までの資料では C2 式とはその拠点で多少違いがある。C2 式が出土した平南、黄海では発見例がなく、忠南、全北で数点確認されており、まだ性急な推論ではあるが、推測してみればその拠点が変わったと判断することもできると考える。同地域は C2 式の祖型だと考えられる B5 式の重点出土地域でもある。そして、C3 式の中でも一段階新しい型式である C3b 式の鏡として、下位属性も類似した例が忠南、全南そして、九州で出土することから、同型式段階にはこれらの地域間に相互密接な製作・普及のネットワークが造成されている積極的な根拠となる。

C4 式の場合、古い段階の C4a 式が咸南と西部韓国地域で発見され、C4b 式もまた平南、黄海地域で発見されておらず、忠南、全北地域に数点確認されている。このことから、C4 式型式とみると、咸南と忠清・全羅地域をつなぐネットワークが造成されたものと理解される。しかし C5 式の場合、平南、黄海地域に集中し、忠南、全北地域で 1 点確認されることから、C4 式とは異なり、平南忠南の西海岸につながるネットワークが造成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ネットワークをみた場合、C5 式は C2 式、C4 式は C3 式と類似し、それは先ほど中区と内区の文様の相似性でみたとおりである。時期的にみた場合、C2-C5 式は細形銅戈、鑄造鉄器と共伴する細形銅剣後期に属するものであるが、各下位型式間に共伴遺物を通してその時期を細分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

5. 結論

琵琶形銅剣段階に A 型銅鏡の製作・普及が、遼西地域を拠点にして行われたこととは対照となる。B 型はもちろん C 型のすべての型式が平南、黄海と忠南、全北地域で発見されることから、両地域が細形銅剣初期から後期にいたるまで多鈕鏡製作・普及の拠点地であることが分かる。これを通して、多鈕鏡に象徴化された<小国>ネットワークの拠点を推測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

粗文鏡段階には単一モチーフの鏡が製作され、粗細文鏡段階に満州と韓半島のいくつかの地域で、構成を異にする 3 つの系統の鏡が製作されはじめる。細文鏡段階になると、韓半島西北韓と西南韓を拠点に定形化された構成と細線技術を土台に外区文様を基準に大きく 4 つの系統の鏡が製作・普及する。外区文様は中間区と内区の文様と相互関連しており、各型式は各々独自の系統をなしながら、他の型式とは選択的に文様の借用がなされる。しかし、系統あるいは型式相互間にそういう借用が全くなされない例もあり、製作工人間の相互交流に差別性があることが分かる。

このような交流の差別性が、細文鏡段階に地域集団の交流が無作為的でなされたのではない可能性を示唆し、さらには満洲-韓半島-日本列島で形成された初期<小国>間の交流ネットワークを具体的に示す糸口となりうる。

<表 2> は韓国語発表要旨をご覧ください

